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도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7월 7일) 2019년 8월 7일 수요일

"훈민정음 창제, 신미 협력으로 가능"



영화 '나랏말싸미' 역사왜곡 논란 진상은?

1443년 세종 친제 밝힌 후
실록서 신미 등장이 '정설'
왕사 예우 · 병환 시 법회 등
세종 각별한 총애도 '사실'

세종 단독VS협력 논쟁 꾸준
'범어기원설' 창제에 배경엔
불교 학승 참여 유력 증거
정광 "신미, 모음11자 제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화 〈나랏말싸미〉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개봉 직후 〈나랏말싸미〉는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논란으로 이어지며 곧바로 흥행에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조철현 감독은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신미라는 인물을 발굴해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조명하려고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해 처절하게 고민했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리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외 판권 수출 등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과 한글문화연대 성명 발표 등 역사왜곡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1443년 창제와 세종 친제

이번 〈나랏말싸미〉 역사왜곡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25년(1443) 12월 30일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창제했는데 옛 글자를 모방했으며, 초 · 중 · 종성으로 나눠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룬다"고 기록됐다.

이후 실록에서 신미 대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로부터 3년 후인 1446년이다. 〈문종실록〉에 따르면 문종은 즉위 직후 신하들에게 선왕이 훈민정음이 반포되던 1446년 비로소 신미의 이름을 들었다고 나와 있다. 실제 〈세종실록〉에도 1446년 5월에 돼서야 신미 스님의 법명이 처음 나타난다. 즉, 정사(正史) 기록인 왕조실록에서는 신미가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다는 직접적 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무봉 동국대 국문과 교수는 "역사적 기록을 놓고 보면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훈민정음 반포 직후 유교경전이 아닌 불경 언해가 바로 이뤄졌다. 이를 주도한 신미 스님을 비롯한 학승들이 훈민정음의 보급과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단독'인가 '팀-세종'인가

이 같은 논란은 훈민정음 창제설이 '단독'과 '협력'으로 나뉘기에 비롯된다. 정사에 기록된 '친제'는 세종 친제론에 가장 핵심적 근거이고 현재까지의 정설이다.

하지만, 협력설의 역사도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실제 조선시대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세종께서 언문청을 설치해 언문을 만들었고, 이는 '범자(梵字)'를 본받았다"고 밝힌다. 음소문자의 원리와 계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김만중 역시 〈서포만필〉에서 "범어는 초 · 중 · 종성으로 합해 글자를 이루니 생성이 무궁하다. 우리나라도 이로 말미암아 언문을 만들었다"고 기술했다.

현대에서도 협력설은 '범어기원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대표적인 학자가 정광 고려대 국문과 명예교수다. 그는 한글 창제를 세종 단독이 아닌 세종의 형제 · 자녀들과 불가의 학승이 이뤄낸 '위대한 발명'으로 본다.

특히 불교에서 전해 오는 유구한 역사의 음성학이 한글 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정광 교수는 주목했다. 실제 그는 2015년에 발간한 연구서 〈한글의 발명〉에서 "고대 인도 음성학인 '비가라론'이 불경을 통해 동아시아에 유입되면서 서장 · 거란 · 파스파 문자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 문자들은 한글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표음문자의 정수"인 한글 창제에는 범어와 음성학에 능통한 학승들이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광 교수는 올해 증보한 저서 〈훈민정음의 사람들〉에서 "세종25년(1443) 12월 제정된 최초 언문은 27자로 중성 11자가 없었다. 모두 자음으로 이를 반절 혹은 언문 27자로 불렸다"면서 "그러다가 신미가 훈민정음 제정에 참여해 반절하자(反切下字)의 운을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고 모음에 해당하는 중성 글자 11자를 따로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신미를 주목하는 이유

신미 스님을 역사 뒤편에서 전면으로 부각시킨 박해진 · 정찬주 작가 등은 훈민정음 제정 · 보급에 있어서 당대 학승 신미와 불교의 역할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신미 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 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쓴 정찬주 작가는 논란 직후 본지에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왕사제도가 사라진 시대에 세종은 신미 스님을 왕사로 예우하고 정음청 학사로 제수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병환 중일 때 놀랍게도 스님이 침전에 들어 법문했다는 기록도 있다"면서 "영화 〈나랏말싸미〉가 그동안 한글 창제에 대한 상식을 벗어나 있어 논란은 당연하다. 다만, 역사적 진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의 저자 박해진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서 훈민정음은 세종이 총괄 기획 · 편집을 맡고 신미는 전문편집인으로서 성음과 문자학의 핵심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진 작가는 신미가 세종으로부터 받은 두터운 대우를 정황적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신미 스님의 동생 김수온의 문집 〈식우집〉 '복천사기'에는 세종이 신미의 이름을 듣고 불러 담소를 나눴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 국상과 전경불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신미였다.

신미에 대한 세종의 애정은 스님에게 내린 승직과 법호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세종은 신미를 판선교종(判禪敎宗)에 임명하고 승직과 법호를 내리려 했으나 신미가 병이 있어 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세종은 1450년 2월 17일 승하했다. 〈관련 특별기고 A3〉

A2면에 기사 계속



고사리손으로 모은 백만원력 승려요양원을 비롯해 한국불교 중흥 불사인 백만원력결집불사에 사상 처음으로 어린이 불자들도 참여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1일 백중 5재를 맞아 5차 백만원력보시바라밀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사 불교학교 어린이와 가족 10팀이 동참했다. 이날 어린이불자들은 주지 지현 스님과 함께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백만원력결집 발우에 넣으며 불심을 키웠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반도 평화 번영 100일 축원 올리겠다"

원행 스님, 文대통령과 오찬서… 8월 1일부터 시작

일본의 경제 보복과 러시아 영공 침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해 불교계가 마음을 모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소속 1만여 사찰은 8월 1일부터 100일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을 부처님 전에 올리기 시작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은 갈등과 경쟁, 질시와 반목의 암울한 기운을 걷어내고 화합과 상생,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다. 화쟁으로 화해하고 한 마음으로 민족공동체 정신을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축원 기도는 지난 7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불교계 대표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원행 스님은 "전국 1만여 사찰에서 종파를 초월해서 8월 1일부터 100일 동안 국가를 위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다"면서 "홍파 스님을 단장으로 일본에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행 스님은 국민통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 대통령에게 구하 스님의 선시 "산이 높아서 귀한 게 아니라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사람이 부유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덕이 있어서 귀하다(山高故不貴以有樹爲貴 人富而不貴以有德故爲貴)"를 인용해 조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대표 지도자들은 7월 26일 청와대 초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는 "국민을 믿고 의지하며 당당하면서도 담대하게 국난 극복을 위해 힘써 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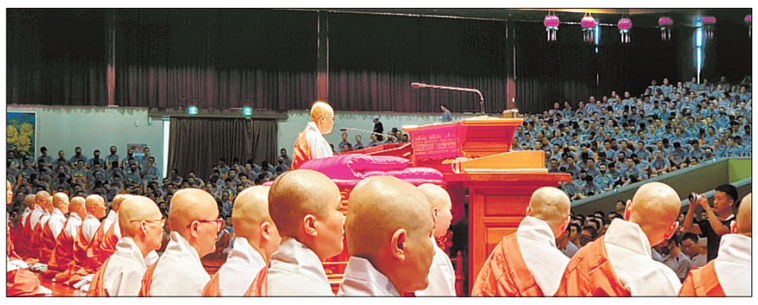
한편,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여름 휴가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승려연수 인증과정
참선과 명상의 최고봉!
대한민국명상포럼
AI인공지능과 IT기업명상의 만남
참선 & 명상지도사 1급 과정



일시: 8월 29일(목)~31일(토) 10시 | 동국대학교(인원 500명) | 문의: 1577-3696
주최: 한국명상총협회 · 한국참선지도자협회 · BBS 불교방송 | 후원: 서울특별시 세계명상센터 | 명상포럼@ 검색


비구니 회장 육문 스님이 수계법회에서 오계를 설하는 모습.

군장병 위로한 비구니스님들의 자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17개 지회 함께 기금 모아
비구니 군승 격려금도 지원

임기 두 달여를 남겨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가 육군훈련소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7월 27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는 전국비구니회가 출범 이후 최초로 마련한 군포교 공식 행사다. 이에 전국비구니회 17개 지회가 함께 기금을 모연, 4000여 명에 달하는 훈련병들에게 푸짐한 간식을 제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이날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우들을 만나고, 당당한 용사로 거듭나는 첫 4주를 훌륭하게 마쳐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당당히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이 연무사에서 부처님과의 첫 인연을 맞음은 앞으로 남은 군생활과 일생일대의 지표가 될 거룩한 만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호국 연무사에 수계법회 후원금 2390만원을 17개 지회 이름으로 기부하고, 비구니 군승 및 민간 성직자로 활동하는 스님들을 위한 격려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 폄훼… MBC 사과하라"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회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MBC 보도에 따른 상황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삼귀의를 하는 스님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MBC가 지난 7월 8일 보도한 템플스테이 예산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보도 문구와 도표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악의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MBC 보도에 따른 상황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MBC는 앞선 보도에서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과 조계사 안심당 운영에 템플스테이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조계사 안심당 및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은 템플스테이 예산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7월 25일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문화사업단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해당 기사에서 문화사업단이 언급된 내용 및 관련 도표를 삭제하라"고 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회의 참가 스님들은 MBC의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행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정부 등의 요구로 지원을 받아 시설을 확충·개선해 왔다"면서 "사중 스님

"악의적 보도 반복" 규탄 목소리
언론중재위, 7월 25일 회의에서
예산 보도·도표 삭제 조정 결정
"조정 결정 당연… 공정 운영 최선"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부족한 비용은 사찰이 부담해 손님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MBC는 템플스테이와는 전혀 다른 별도 예산으로 집행된 조계사와 봉은사의 시설을 문제 삼아 불교계의 노력을 철저하게 왜곡·호도하고 있다"면서 "(불교계가)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 양 매도했으며 현재 템플스테이 시설비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이번 MBC의 보도는 사찰 실정에 대한 몰이해뿐만 아니라 사실도 왜곡해 템플스테이 사업을 폄하했다"면서 "이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템플스테이 종사자들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회의에 참가한 운영 사찰 주지 스님들은 MBC 보도를 규탄하고 사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종단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님들은 일련의 상황 대해 입장을 정리한 입장문도 결의·발표했다.

스님들은 입장문에서 "템플스테이 운영 시설에 대한 왜곡 보도를 자행한 MBC에게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명명백백한 진실과 사실에 의거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템플스테이 및 불교계에 대한 MBC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더불어 이러한 악의적 보도행태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MBC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스님들은 이어 "템플스테이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2002년 템플스테이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만에 하나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더욱 살피는 자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 국민행복과 힐링, 진정한 휴식이라는 템플스테이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1면에 이어 계속

이후 문종은 선왕의 국상을 끝내고 신미에게 '선교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융무애 혜각존자(禪敎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碍 慧覺尊者)'라는 법호를 내렸다. 특히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우국이세'라는 칭호는 공적이 분명한 대신과 장상에게 주는 것이어서 더욱 특별했다.

박해진 작가는 "'정사'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을 완전하게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세종실록〉의 편수관이었던 정인지는 훈민정음과 관련 기록을 편집하고 해례의 서문을 〈세종실록〉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결과적으로 역사에는 훈민정음 해례를 편찬할 때 참여했던 집현전 8학사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미는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핵심 협찬자이고, 훈민정음 해례의 간행과 이후 편찬된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 등을 통해 훈민정음 보급에 앞장섰던 선지식"이라며 "〈월인석보〉 협주에 기록된 신미 스님을 비롯한 당대 10학승과 신미의 동생 김수온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곡 논란 이후를 준비하자

현재 제기되는 논란의 문제점은 단순 창제설의 이견을 넘어 훈민정음서 불교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신미 스님의 역할론과 훈민정음 창제에서 불교의 영향을 체계적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몇몇 기록과 구전을 통해 오던 신미를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과 영화를 통해 현재로 소환했다.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전문 연구자의 몫"이라며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세종과 신미의 뜻을 올바로 기리기 위해서는 불교학자와 국문학자의 협동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한국불교사연구소에서도 관련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에 많은 자문을 했던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조계종 호법국장)은 "영화 〈나랏말싸미〉는 충분히 역사적 고증과 근거를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논란을 통해 불교계와 학계가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창제 직후 발간된 불경 언해본들에 대한 번역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日강제징용 유해봉환 '신중론' 대두

한일 양국불교 논의 소식에 정부·민간 관심

한국과 일본 양국 불교계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이 제기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는 지난 5월 전일본불교회로부터 '구(舊)민간 징용자 유골 봉환에 관하여'라는 공문을 받았다. 전일본불교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쥰이치로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이 최근까지 부진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양국 불교계 주도로 유골봉환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전일본불교회는 "2005년 일본 정부로부터 반환을 전제로 한 유골조사, 정보제공 협력요청을 받았다. 이후 7만여 사찰 협력을 받아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조사가 시작된 후로 14년 이상 유골봉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유골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에 따르면 유해에 대한 실지조사는 237회 이뤄졌으며, 한반도 출신으로만 판명된 유골부터 성명과 출신지 등 상세한 사항까지 판명된 유골까지 총 1018위가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다.

이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6월 제39차 한일불교대회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전일본불교회와 회의를 거쳐 각국 대표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후 한국 측에서는 조계종과 관음종, 삼론종, 원효종 수장을 대표단으로 확정했다. 현재 일본 측은 오는 가을에 첫 회의를 하자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앞서 유해봉환을 추진해온 민간단체들은 양국 불교계의 논의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그간 한국정부가 유해봉환에 대한 논의를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전일본불교회, 한국불교에 제안
"1018위 사찰에 보관 안타까워"
양국 불교계 논의 대표단 구성

日정부 향한 의구심도 제기돼
"책임소재 떠넘기기 가능성도"

일본 측이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 대한 배상 판결 등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일본이 불교를 통해 한국으로 최대한 빨리 유해를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무연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봉환을 추진해온 민간단체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 윤승길 사무총장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면서 "실무적·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정부·민간단체와 함께 유해봉환을 다뤄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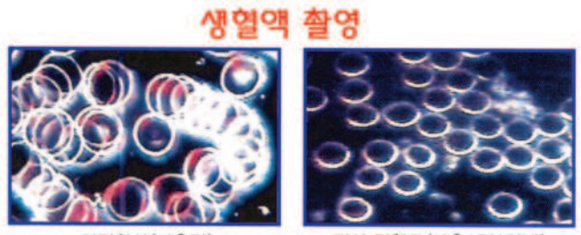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윤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유족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태평양강제징용유족회 등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일본의 의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 창구는 유지하되 조금 더 국가적인 사안으로 중요하게 다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부 측도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관계자는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불교계가 유해봉환을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책임소재를 불교가 아닌 국가가 질 수 있도록 해야 문제가 없다"며 "국내 정서상 일본의 사과 없이 유해를 가져올 순 없다. 우선 한국 불교계가 이 사안을 정부차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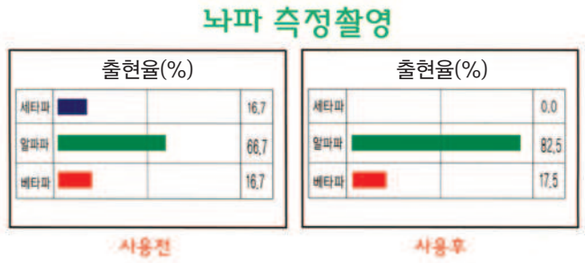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찰음식’, 아동급식 메뉴 선정 추진

하남 상불사, 하남시와 급식레시피 도입 추진

7월 28일 사찰음식 체험 100여 아이들 경험해 눈길 하남시장 “급식 센터 전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하남 상불사서 열린 제 1회 숲속학교 사찰음식 체험행사 모습. 하남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사찰이 이어온 전통음식인 사찰음식이 아동 급식 메뉴로 활용된다. 사찰음식이 지닌 건강 식단으로서의 가치와 내재된 정신문화를 활용한 아이들의 인성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는 7월 28일 상불사에서 ‘경기도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회 숲속학교 사찰음식 체험 및 시식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숲속학교에 참여한 100여 아이들과 학부모,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한 하남시 관계자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표했다.

무엇보다 지역 최초로 사찰음식 체험 행사를 연데 이어 아동급식까지도 사찰음식 레시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남시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28일 행사 종료 후 상불사 스님들의 사찰음식 레시피를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상태”라며 “향후 영양사 등 관계자들이 검토해 급식단에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은 “사찰음식은 오랜 기간 쌓인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음식”이라며 “자라는 아이들이 함께 이러한 지혜도 배우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또 육식 중심의 식단에서 채식 중심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변화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찾은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영유아 급식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이곳에서 사찰음식을 활용해 건강메뉴를 개발하면 시민들 건강도 담보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사찰음식의 활용 범위 확장에 대해 사찰음식 전문가들은 반색을 표하며 과제를 제시했다.

사찰음식 전문가인 적문 스님은 “그동안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함께 사찰음식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사찰음식의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급식 분야에서도 사찰음식의 일부 메뉴를 활용해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잡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음식계에서도 급식분야로의 진출은 사찰음식이 단순히 조리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인 개발을 다짐했다.

이심열 동국대 전통사찰음식연구소장도 “사찰음식 속에는 다양한 레시피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급식 레시피 또한 충분히 개발해 낼 수 있다”며 “사찰음식의 과학화에도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실무적인 조리법 보급 외에도 연구와 연구성과 홍보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나랏말싸미’는 옳다”

영화 ‘나랏말싸미’ 역사 논란에 부쳐



특별기고 정찬주 소설가

영화 〈나랏말싸미〉역사왜곡 논란에 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통해 신미 대사의 존재를 알린 정찬주 소설가가 특별기고를 보내왔다. 이에 정찬주 작가 기고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가을 영화 〈나랏말싸미〉 조철현 영화감독이 필자의 산방으로 찾아와 초저녁까지 이야기하고 간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조 감독에게 “한국불교에 빛과 그늘이 있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 그 그늘을 조금이라도 지워준다면 나는 내 소설 〈천강에 비친 달〉 어느 부분을 뽑아가더라도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가 막상 개봉이 되고 나니 한글창제설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나는 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왜 집필했는지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내가 파악한 한글창제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밝히고 싶다.

서울의 모 일간지에 〈암자로 가는 길〉을 연재하고 있을 때였다. 속리산 복천암을 취재차 올라갔다가 월성 노스님으로부터 한글 창제의 공이 많다는 신미 대사의 이야기를 난생처음으로 들었다.

몇 년 후 또 그 일간지에 〈선방 가는 길〉을 연재하게 되어 두 번째 복천암을 찾았는데, 그때도 스님은 신미 대사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글창제 비사(秘事)를 말씀하셨다.

마침내 나는 노스님의 절절한 원을 풀어주고자 장편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완성했다.

왕사제도가 사라진 시대에 세종은 신미대사를 왕사로 예우했다. 또 대사를 정음청 학사로 제수했다. 〈연산김씨세보〉에는 신미대사를 학사로 임명하여 집현전 학사들에게 범어의 자음과 모음체계를 설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문종실록〉에도 대사와 정음청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병환 중일 때 놀랍게도 신미대사가 침전에 들어 법문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문종실록〉에도 “선왕(세종)이 신미대사를 존경했다”는 기록이 있고, 세종의 유언에 의해 ‘우국이세 혜각존자(祐國利世 慧覺尊者)’라는 존호를 내린다는 구절이 있다.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했던 실체는 바로 한글창제가 아닐 것인가.

우리들은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창제했다고 학교에서 배운 바 있다. 그러나 한글이 비밀리에 창제될 때까지 집현전 학사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고, 또 창제에 참여할만한 능력이 모자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의 서문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

‘그 깊은 연원과 정밀한 뜻이 묘연하여 신 등은(정음을 창제함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다(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정인지는 또 ‘꼴을 만들되 글자가 옛 전자와 비슷하다(象形而字倣古篆)’라고 모호하게 말했지만 동시대 인물이었던 성현(成俔)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글자체는 범자에 의지해서 만들었다(其字體依梵字爲之)’고 ‘범자기원설(梵字起源說)’을 밝히고 있다.

세종이 재위 25년(1443)에 한글 창제를 전격적으로 공개한 뒤부터 집현전 학사들은 각자 찬반 주장을 했다. 이는 한글 창제가 공개된 이후의 일이었다. 오직 세종과 신미 대사, 그리고 신미 대사에게 귀의한 세자(문종), 수양, 안평, 정의공주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글 창제를 세종과 신미 대사의 애민정신 말고도 유불 갈등 및 왕권과 신권이 대립한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보았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그동안의 한글 창제에 대한 상식을 벗어나 있으니 논란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다. 다만, 역사적 진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상상력의 예술이 역사적 진실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강단학자들의 연구로 한글 창제의 진실이 보다 깊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조철현 감독의 데뷔작 〈나랏말싸미〉가 용기 있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본다.

‘명상 대중화’ 한국명상총협회 출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초대회장 명상한류 목표


한국명상총협회 대표들이 명상 대중화를 발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 이하 한명총)는 7월 26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의 전통적인 참선 수행법에 기반을 둔 통섭명상을 바탕으로 명상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도모하기로 결의했다.

한명총은 국내 자생적 명상수행법인 이시형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의 자연명상과 각산 스님의 초기불교 · 간화선 통합수행,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존 카밧진의 MBSR, 인도수상 모디의 멘토인 인도 나겐드라 총장의 VYG 요가명상, 한국피트니스전문가협회 케어건강명상, 13만평 숲속 명상치유가든 로미지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각산 스님은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한류라는 문화현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참선과 국내외 수행법을 아우르는 통섭명상을 통해 새로운 한류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체계를 확립하고, 지도자 양성 및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회에서는 오는 8월 29~31일 동국대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에 대한 안내와 경북 영주시에 건립 중인 한국명상수련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올 하반기 서울 강남에서 펼쳐지는 한류명상페스티벌에 한명총이 주관하는 명상행사와 해외 우수 명상센터 탐방, 명상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 상향 추진

조계종 종헌특위, 법계 중덕 이상 승려에 부여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당해 교구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는 7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2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다뤘다.

현재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은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정해져 있다. 종헌특위는 회의서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구성원 자격을 준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승가고시를 치르지 않는 스님들이 많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승랍 10년, 3급 승가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인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법계 대덕(혜덕)’으로 수정하면서 종헌개정안을 함께 준비키로 했다.

만약 중앙종회 본회의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는 각 교구마다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거권을 갖던 법계 중덕 이하의 교구 재적승의 반발도 예상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에서는 교구본사주지 후보자 자격 중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수정했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은 본사주지 후보자 자격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실장급’으로 변경했으며, 중앙종무기관 국장급은 교구본사 국장급에 맞춰 4년 이상의 재직 경력을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은사 · 도제 · 사형사제 등이 아닌 승려에게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는 창건주 권리를 2회로 늘리는 사찰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대회 : 중흥조 묵담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담양 용화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경애하옵는 전국 불교 대종사 명사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드디어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은 각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전체의 문화재입니다.
금번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여 보고 듣기만 하여도 불교의 근본 뜻을 알게 되고 개인의
소원성취는 물론이고 국운융창 경제부흥 남북통일 세계평화가 꼭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부대중과
불교 신도 외 일반인들도 무루 참석하시기를 기원드려 마지 않습니다.


묵담 올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점안작법 전수자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합 장

시간	발표자 및 주제	비고
09:30 ~ 10:00	식전 행사	불복장 영상 상영
10:00 ~ 10:30	개회사 및 축사	• 수진스님 • 이개호 농수산부장관 • 불복장 작법 보존회 회장, 도지사, 군수
10:30 ~ 10:40	휴식	단상 정리
10:40 ~ 11:10	〈제1발표〉 이중표 – 전남대 • 불복장 작법의 사상적 배경	학술대회 사회 : 최종남(중앙승가대)
11:10 ~ 11:40	〈제2발표〉 이승혜 – 삼성 리움 • 불복장 작법의 발생과 전래	
11:40 ~ 13:00	점심 공양	
13:00 ~ 13:30	〈제3발표〉 남권희 – 경북대 • 담양 용화사 소장 불복장 작법 관련 필사본의 서지적 가치	
13:30 ~ 14:00	〈제4발표〉 수암스님 – 금붕사 • 묵담 대종사의 불복장 작법 중흥과 전승	
14:00 ~ 14:10	휴식	
14:10 ~ 14:40	〈제5발표〉 이종수 – 순천대 •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4:40 ~ 15:00	종합평가 및 폐회식	종합 평가 : 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스님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대회 안내

주최 및 후원
• 주최 : 전남 담양 용화사 신도회(061-381-2683)
• 주관 :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
•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담양군, 문화재청, BTN, 현대불교신문

장소 및 일시
• 장소 : 담양 문화회관 대강당 (담양 시외버스터미널 옆)
• 일시 : 2019년 9월 7일(음력 8월 9일) 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한국불교태고종 용화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 Tel. 061)381-2683

불복장 작법 중흥조 묵담대종사 조명

담양 용화사, 9월 7일 담양문화회관서 학술대회

근현대 선지식 묵담 대종사
율사이자 증명법사로 '유명'
불복장 작법 관련 기록 남겨
금해-묵담-수진 법맥 조명도



묵담 스님은 한국 근현대불교사에 있어서 선 · 교 · 율을 겸비한 대종사로 평가받는다. 불교조계종 5 · 6 · 7세와 한국불교태고종 3 · 4세 종정을 역임한 선지식으로 해동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자 전계화상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작법의 중흥조 묵담성우 대종사(1896~1981, 사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중흥조 묵담대종사와 후계자 도월 수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는 주관단체로 참여한다.

묵담 대종사는 선 · 교 · 율을 겸비한 선지식으로, 불교조계종 5 · 6 · 7세와 한국불교태고종 3 · 4세 종정을 역임했다. 또한 해동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자 전계화상이자 모든 불사에 작법증명하는 증명법사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불복장 작법의 계승자로 관련 경전 필사와 잡기 등을 많이 남겼다. 실제 지난 2017년 6~8월 묵담유물관 소장 문헌자료조사를 통해 불복장 의식과 관련되는 10종의 문헌이 발견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복장 작법의 전승과 묵담 대종사의 작법 등을 조명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특히 금해 관영-묵담 성우-도월 수진으로 이어지는 불복장 작법의 법맥을 조명하는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중표(전남대)의 '불복장 작법의 사상적 배경' △이승혜(리움박물관)의 '불복장 작법의 발생과 전래' △남권희(경북대)의 '담양 용화사 소장 불복장 작법 관련 필사본의 서지적 가치' △수암 스님(금붕사)의 '묵담 대종사의 불복장 작법 중흥과 전승' △이종수(순천대)의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이 각각 발표된다.

연구 논문 발표 이후에는 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 스님의 종합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담양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은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은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전체의 문화재로,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됐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복장 작법의 전승과 묵담대종사의 작법을 다시 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상 ·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 작법은 지난 4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됐다.

보유단체로는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가 지정됐다.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는 불복장의식보존회는 평생 불복장 작법 전승에 매진해 온 무관 · 경암 · 수진 · 승호 · 도성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설립됐다. (061)381-2683



학교법인 이사장 법산 스님은 7월 30일 일산병원을 찾아 전 직원들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복숭아를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 '복숭아 · 삼계탕'으로 구성원 격려

법산 스님 의료원 찾아 '복숭아 나눔'
윤성이 총장, 근무자와 '삼계탕 소통'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한여름 더위에 지친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7월 30일 일산병원을 찾아 전 직원들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복숭아를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법산 스님은 "저와 동국의 인연은 반백년 정도 되며, 특히 일산병원은 터 닦을 때부터 축원한 인연"이라며 "생노병사 중 병고가 제일 고통스럽다. 최선을 다해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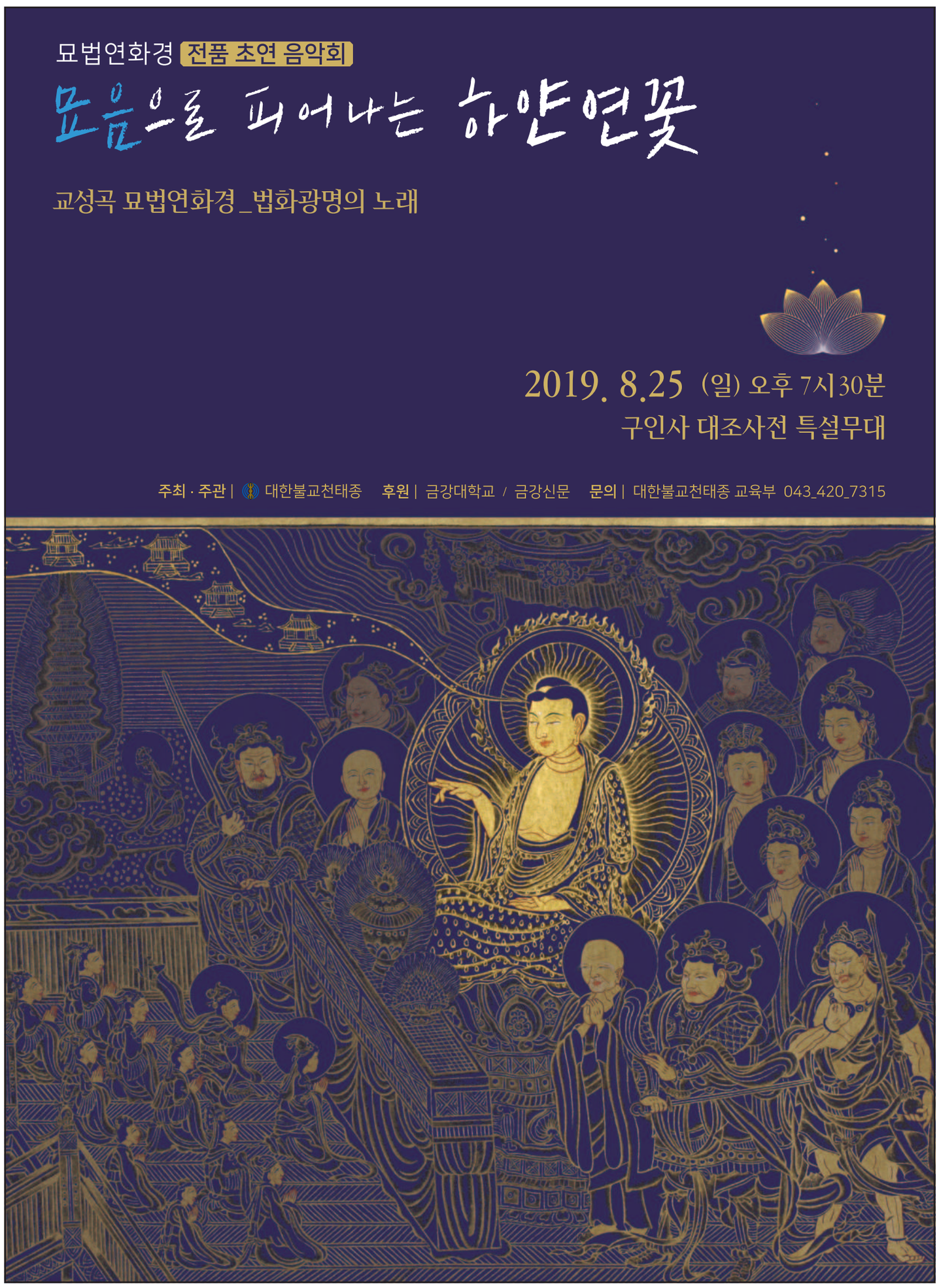
조성민 의료원장은 "이사장 스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성원들이 합심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일을 전달받은 직원들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윤성이 총장은 앞선 7월 22일 교내 미화 · 경비 · 주차 근무자 약 170여명에게 교내 상록원 식당에서 중복을 맞아 삼계탕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성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래 구성원들과 소통 · 화합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이 지속발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좋은 대학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미화원 대표로 참석한 변명자 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학교 발전을 위해 저희들도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8월 14일 열려

제8회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이 8월 14일 인제 만해마을 광장에서 열린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전국백일장은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한국문학의 폭을 넓히고, 일반인의 문학적인 감수성과 소양을 개발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백일장은 시와 시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시제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시상 내역은 시 · 시조 부문 각각 △장원 1명 강원도지사상과 상금 200만원 △차상 1명 인제군수상과 상금 100만원 △차하 1명 인제군의회의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3명 인제신문사 대표상과 상금 각 10만원이다.

참가 자격은 나이 · 성별 · 지역 제한 없으며, 참가 희망자는 만해축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8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만해축전 관계자는 "해마다 8 · 15광복을 맞아 독립의 참뜻을 되새기고 만해 선생의 애국정신과 문학사상을 기리고자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3 · 1운동 100주년이라서 행사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9월 2일 개원

서울 조계사 중점사업인 선재어린이집이 9월 2일 개원한다. 이를 앞두고 원아를 모집한다. 선재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만 0세반부터 5세반까지 운영되며 총 정원은 97명이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할 수 있고, 입소예정자는 오는 20일부터 개별 통보된다.

조계사 사회국장 대륜 스님은 "요즘에 여성의 취업과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가정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 보육 또 건강, 영양관리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선재어린이집은 보육실부터 놀이터, 수유실, 음악실까지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조계사는 내진설계를 비롯해 친환경 자재와 곳곳에 충격방지 쿠션 등을 사용해 아이들의 안전에 특히 더 신경 썼다. 더불어 당초 정원을 140명 정도로 계획했지만, 100명 내외로 줄여 보다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계사는 '마음이 고운 어린이, 꾸밈없는 어린이, 배려하는 어린이'를 원훈으로 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답보상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 8월 13일 제62차 월례강좌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답보상태에 머무른 현재, 남북관계를 진단하는 강좌가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는 오는 8월 13일 오후 7시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제62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남북관계 진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민추본 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과 북이 함께 일궈낸 평화 공동사업으로,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과제"라며 "6.30 판문점 정상 회동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미 관계가 진전될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창현 소장은 민추본 정책기획위원이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윤호섭 기자

한여름 무더위, 명상 수행으로 탈출을

2019 여름 가볼만한 수행처


사진제공=불교문화사업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줄줄 흘러 내리는 땀방울 만큼 마음 속의 번뇌도 흘러 내렸다. 몸의 피곤함은 잠시, 내 안의 마음 작용을 살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 사찰에서 열린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한 참가자가 수련을 마치고 사찰에 전한 후기 중 일부다. 무더위가 훌쩍 다가온 8월, 조금은 색다른 수련현장이 불자대중을 반긴다.

108배, 철야정진과 같은 불교수행과 함께 무문관 수행 등 심화수행, 그리고 마음챙김 강좌 등 다양하다. 흐트러진 마음, 그리고 더위에 지친 몸을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함께 다잡을 수 있는 기회다.

간화선, 위빠사나 새롭게 맛볼까?

춘천 제따와나선원은 8월 10~18일 매월 둘째주 토요일부터 셋째주 일요일까지 8박 9일간 하계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제따와나 선원은 대승불교의 간화선을 현대화 하여, 위빠사나 수행과 결합한 팔정도 수행법을 보급하고 있는 곳이다. 성철 스님의 손상좌인 일묵 스님이 직접 대중을 면담해가며 친절한 수행 안내를 진행한다. 에어컨 등이 완비된 개인별 꾸티(수행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현대화된 수행시설을 느껴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033)262-4812

천안 호두마을은 국내에 위빠사나 수행을 알려온 곳으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호두마을의 경우 전문적인 위빠사나 수행이 진행되는 곳으로 아침부터 행선과 좌선이 이어지며 오후에는 아비담마 공부와 그룹인터뷰, 개인인터뷰가 진행된다. 다시 저녁까지 행선과 좌선이 이어지는 과정이다. (041)567-2841

부산 보디야나선원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양산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에서 집중명상 수련회를 개최한다. 첫 집중명상 수련회인 만큼 참가자들이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인터뷰와 좌선, 걷기명상을 명상 전문가 혜안 스님과 혜송 스님이 지도한다. (051)959-0108

남양주 봉인사는 8월 13~20일 티벳명상 집중수련회를 개최한다. 티벳불교 명상은 자유로운 알아차림을 주제로 티벳불교 사타타(마음의 안정찾기), 자비수행(내면의 보물 알아보기) 등을 진행한다. 지도는 용수 스님이 맡으며, 오전 10시마다 강의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사찰 여름수련회도 아직 기회가!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진행하는 여름수련회도 7월에 이어 8월 막바지 불자들을 위한 문을 연다. 월정사 여름수련회가 8월 16~18일, 통도사 여름수련회가 8월 9~11일, 길상사 여름선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것이다.

평창 월정사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직장인 수련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이어 8월 9~11일, 8월 16~18일 등 2박3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실시한다. '몸을 깨끗이, 지구를 맑게 몸에서 마음으로, 나에서 지구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서는 청소명상, 달빛포행 등이 진행된다. (033)339-6800

통도사 여름 수련회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자연을 벗 삼아 행복과 자아를 찾아 떠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집중명상과 경내 총림문에서 대웅전까지 진행하는 삼보일배가 진행된다. (055)382-7182

무문관 · 차명상 등 다채
장애아동 수행 기회 제공
새로운 형태 여름나기 눈길

서울 길상사에서도 선 수련회가 열린다.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길상사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019 길몽(吉夢) 선수련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선수련회는 참선 실습이 본격 진행된다. 첫날 입재식에 이어 새벽예불, 나를 깨우는 108배, 도량 울력, 발우공양, 참선 및 요가, 스님과의 대화, 도량포행, 북악하늘 숲길 걷기, 수계식 등이 진행된다.

전북 금산사는 전북불교회관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여름 특집 명상철야정진을 진행한다. 원심선회(회장 하유호)가 주도하는 이번 명상철야정진은 철야정진을 통해 명상의 새로운 분야를 여는 기회다.

차명상 등 현대명상 프로그램 진행

성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자비선차명상 지도자 및 차명상 코칭 지도자 양성 하계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자비선명상원은 동화사 율주며 그동안 선의 현대화를 주도해온 지운 스님이 지도하는 곳으로 지관 수행을 자비선으로 구성해 가르친다. 특히 차명상을 통해 다도 속에 숨겨진 지관수행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올 여름에는 불교계 폐관 참선 수행인 무문관도 새롭게 일반인을 위해 열린다. 무문관은 그동안 출가자를 위한 수행으로 알려져 있다.

행복공장은 2014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무문관프로그램을 개설, 올 여름 아홉 번째로 무문관을 연다. 참가자들은 6박 7일 동안 1.5평의 독방에서 머물며 혼자 참선 수행을 한다. 수행에 대한 금강 스님의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초심자를 위한 금강 스님의 강의와 수행문답이 이루어진다. 강의 및 수행문답 참여 여부는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행복공장 측은 "이번 무문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깊이 이쓴 참선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6084-1016

청소년 · 소외계층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와 함께 소외계층이나 청소년과 함께 하는 여름철 명상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명상나눔협동조합은 8월 12~14일 장애형제와 함께 사는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일하이빌의 조합 명상실 무위방에서 열리는 이번 명상놀이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몸감각 느껴보기, 호흡수세기놀이, 먹을 것에 감사하기, 대화로 상대방 소개하기, 종이리본 날리기와 지퍼올리기, 상상으로 마음보기 등 장애 아동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 금강선원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 마음이 행복해지고 공부가 즐거워지는 명상' 을 개최한다. 금강선원은 20여 년 동안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불교계 대표적인 사찰이다.

금강선원은 이번 청소년 명상캠프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불교명상 체험을 통해 자라는 아이들의 인격 수양과 함께 불교가 가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445-8484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8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박양우 문체부장관, 금산사 예방

월주 스님, 불교관련 사안 정부차원 관심 당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7월 29일 김제 금산사를 방문, 월주 스님과 성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과 불교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 불교관련 사안에 정부차원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박양우 장관, 조실 월주 스님, 정재숙 청장.

박양우 장관과 정재숙 청장은 성우 스님의 안내로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방등계단(보물 제26호) 등 금산사 문화재를 둘러본 후 뇌묵처영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월주 스님의 지구촌공생회 15주년 특별전시회를 관람했다.

박양우 장관은 전시회를 둘러본 후 "송월주 스님의 한국불교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자비행 등 사회곳곳에 끼치신 공적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방명록에 소회를 남겼다.

이날 환담에는 이우성 문체부종무실장과 최보근 문화재청정책국장이 배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 사랑으로 마음 키워요"

창원 성주사, 제32차 보리수 템플스테이 개최

130여 명의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마음, 불성으로 행복을 찾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됐다.



창원 성주사(주지 흥교)는 7월 27~28일 경내에서 '제32회 성주사 보리수 템플스테이 마음愛 부처님'을 개최했다. 성주사 템플스테이 입재식에는 원재 스님과 지도법사 보문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 13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개회식에서 원재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니 반갑다. 좋은 추억 많이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보리수 템플스테이는 △입재식 △팀빌딩 △산사에서 즐기는 물놀이 △우리는 하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성주사 보리수 템플스테이는 어린이 인성 함양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건강하고 밝은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차 한 잔으로 전하는 자비

이웃을생각하는모임, 8월 28일 이웃돕기 일일찻집

김해 나눔 공동체, 이웃을생각하는모임이 차 한 잔에 자비를 담는 따뜻한 일일 찻집을 개최한다.

이웃을생각하는모임(회장 혜진 · 이하 이생모)은 8월 28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인제로에 위치한 카페달리아에서 '이웃돕기 일일찻집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전달식은 △경과보고 △내빈소개 △임원소개 △환영사 △격려사 △축사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회장 혜진 스님은 "이 세상은 각자의 복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존재는 소중한 인연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라며 "바쁜 연말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웃돕기를 실천하자는 생각으로 추석을 앞두고 일일찻집을 개최한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이생모는 2012년 2월 지역 스님과 재가자들이 합심해 창단했다. 이후 아동급식비 지원, 장학금, 군부대 후원, 청소년을 위한 사업, 국내외 자비실천, 해외포교 등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문화공간 쿠무다, 포교 새 장 연다

신축건물 기공… 2020년까지 8층 규모로 공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문화 포교 1번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동하는 쿠무다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 송정 바다 앞에 지상 8층 높이의 문화예술공간을 기획, 준공할 예정이다. 쿠무다는 이에 앞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문화 포교에 함께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대표 주석)는 7월 30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은 △환영사 △경과보고 △쿠무다의 걸어온 길 영상시청 △인사말 △치사 △축사 △쿠무다 미래 영상시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만찬 및 축하음악회가 열려 문화공간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치사에서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를 일으켜야 한다"며 "쿠무다 불사는 한국불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러한 불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처럼 구태의연한 사고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된다"고 격려했다.

쿠무다 대표 주석 스님은 "시대에 맞는 언어로 포교방향을 고민하고 현대인에 맞는 키워드를 생각하며 쿠무다를 시작했다. 문화 포교를 지원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신축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준공식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레스토랑 · 공연시설 · 법당 등
복합문화공간 면모 살려 기획
총 공사비용만 100억 원 소요
7월 30일 기공식 및 음악회

쿠무다 신도를 대표해 박대건 신도회장은 "오늘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사부대중 원력으로 원만히 회향할 것을 믿는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2013년 12월 문을 열었으며 갤러리를 비롯해 북카페, 법당으로 새로운 불교문화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공간 제약이 많아 새로운 공간 불사를 발원했으며, 2017년 1월 40억 원으로 현 신축부지를 매입했다. 2017년 9월 기존 건축물 철거에 착수했으며 그해 11월 설계시안을 만들고, 2018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아 2019년 3월 착공했다. 공사비용은 외부 시설 70억 원과 내부 시설 3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준공은 2020년 10월 마무리된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7월 30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에서 대표 주석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는 해운대구 송정동 436-4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8층에 대지면적 568.5㎡(172평), 연면적 2,838.98㎡(860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2층 레스토랑 △지하 1층 문화예술 공연시설 및 명상센터(250석 규모) △1층 주차장 및 수변휴게시설 △2층 프렌치 레스토랑 △3층 카페 쿠무다 △4층 평생문화교육센터 △5층 문화교육센터 △6~8층 힐링빌리지 △옥상 바다법당 및 바다정원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한편 기공식에는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김광호 해운대경찰서장, 백용기 거붕그룹 회장 등 내빈 300여 명이 동참했다.

지리산자락 빗소리도 '和音' 되다

산청 문수암 제3회 산사음악회
대중 익숙한 클래식으로 준비

해가 져 어둑한 지리산 골짜기에 비가 고요히 내렸다. 사찰에서 귀에 익숙한 엘가 사랑의 인사가 연주되고 세레나데가 연이어 흘러나왔다. 비가 내리자 대중은 우산을 펼쳐들었고,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마저 화음이 됐다.



지리산 산청 문수암이 제3회 문수암 산사음악회를 7월 27일 경내 마당에서 진행했다.

지리산 산청 문수암(주지 기영)이 제3회 문수암 산사음악회를 7월 27일 경내 마당에서 진행했다.

문수암 주지 기영 스님은 산사음악회에 불교음악을 고집하지 않았다. 종교를 초월해 자연에서 쉼을 얻고 음악을 통해 힐링을 선사하는 것, 그 자체도 불교정신이란 뜻에서다. 익숙한 곡을 선정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산사음악회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세레나데로 시작했다. 첫 번째 무대는 꼬니-니꼬 체임버앙상블이 장식했으며, 신화수 바리톤이 헨델의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와 그리운 마음을 불러 지리산 자락에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를 선사했다. 꼬니-니꼬 체임버앙상블의 아리아와 루마니안 춤곡이 이어졌고, 창원남성합창단이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와 광야에서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는 임동창 피아니스트가 '1300년의 사랑이야기' 시리즈 중 4월의 신부, 효재의 꿈, 달하를 연주했다.

문수암 산사음악회는 작지만 알찬 것으로 이미 입소문이 났다. 처음 시작 당시 50여 명의 청중이 자리했지만 횟수를 거듭하며, 문수암 마당에는 대중으로 가득 찼다. 또 지리산 깊은 곳 산청 시천면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음악회 당일 문수암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다.

공연팀이 곡을 마칠 때마다 환호하는 앵콜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가 계속 내려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중은 작은 사찰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장종해(부산 · 46) 씨는 "생각보다 사찰 규모는 작은데 50여 명의 합창단과 연주를 이끄는 오케스트라까지 부족함이 없었다"며 "수준 높은 음악회를 마련해 보여준 스님께 감사드리며 임동창 씨의 자유로운 곡 연주를 들으면서 전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주지 기영 스님은 "문수암은 우화루라는 전각이 꽃비 마당이다. 그래서인지 음악회만 하면 비가 내린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스님은 "와주신 모든 대중에게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했으니 감상하시고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無’, 인간 본래의 청정성 지닌 마음

지원 스님의
선문답 이야기 ③





스님이 무문관 대문을 굳게 걸어잠그는 모습.

공안에 대한 의문 방식 ‘왜’ 아닌 ‘무엇’
‘왜’의 화두 방식은 분별심만 키울 뿐
반드시 ‘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第一則 : 趙州狗子(조주의 개)

趙州和尙, 因僧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 無,

趙州和尙, 因僧問. 조주 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狗子還有佛性也無.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州云, 無.조주 화상이 말했다. “무!”

우리나라도 반려견 1천만 시대에 돌입되었다고 한다. 견공에 대한 배려는 사람 이상으로 높다. 어떤 면에서는 견공이 사람 이상으로 극직한 대우를 받고 있다. 애견카페, 애견마켓, 애견펜션 등등. 이러한 시대에 조주 스님이 계셨다면 어떤 법어를 내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에 대한 불성을 묻는 〈무문관〉 제 1칙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조주 스님은 개의 불성에 대해 ‘有’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또 어느 때는 ‘無’ (없다)라 하기도 한다. 〈조주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 했다.
“집집마다 문 앞은 장안으로 통한다”

여기서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대화의 근거로 〈종용록〉 제 18칙에 보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없다’ 의 대답이 나온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불성이 있는데 왜 짐승으로 태어났습니까?”
“개가 알면서도 일부러 범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스님이 다시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일체중생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찌해 개에게는 없습니까?”
“개에게는 업식(業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공안에서 이후에 유(有)와 무(無)가운데 무(無)에 대해서만 주목한 까닭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있다(一切衆生皆有佛性)고 하셨는데, 왜 질문을 받은 개에게 없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가령 “개에게는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 말은 개는 번뇌망상과 업식 때문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주 스님 말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준엄한 말이다. 수행자라고 한 네 놈도 업식에 놀아났다가는 세세생생 개처럼 살 것이다. 개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집착하지도 말고, 나 조주의 대답만 듣고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내 자신의 불성도 알지 못하면서 개의 불성까지 알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입만 살아 가지고 불성이 어떻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어슬렁거리다가는 개처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조주화상에게 무(無)란 분별심이 없는 본래 청정성을 지닌 무심(無心)이다. 이것은 조사의를 가지고 망심을 끊어가는 화두라는 방편으로 삼는 간화선 수행에서 대표적 공안 가운데 하나이다. 조주화상의 무자 공안도 마찬 가지이다. 화두를 드는데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안에 대한 의문 방식이 ‘왜’가 아닌 ‘무엇’이라는 것이다. 곧 ‘왜’의 방식은 화두에 대한 분별심만 키울 뿐이다. ‘왜’라고 묻는 것은 과학이고 수학일 뿐이다. 화두는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다. 논리를 초월한 소위 초월 논리이다. 따라서 반드시 ‘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無門曰】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絕. 祖關不透. 心路不絕. 盡是依草附 木精靈. 且道. 如何是祖師關. 只者一箇無字. 乃宗門一關也. 遂目之曰禪宗無門關. 透得過者. 非但親見趙州. 便可與歷代祖師. 把手共行. 眉毛廝結. 同一眼見. 同一耳聞. 豈不慶快. 莫有要透關底. 麼將三百六十骨節八萬四千毫竅. 通身起箇疑團. 參箇無字. 晝夜提撕. 莫作虛無會. 莫作有無會. 如呑了箇熱鐵丸. 相似吐又吐不出. 蕩盡從前惡知惡覺. 久久純熟. 自然內外打成. 一片如啞子得夢. 只許自知. 驀然打發. 驚天動地. 如奪得關將軍大刀入手. 逢佛殺佛. 逢祖殺祖. 於生死岸頭得大自在. 向六道四生中. 遊戲三昧. 且作麼生提撕. 盡平生氣力. 擧箇無字. 若不間斷好. 似法燭一點便著.

無門曰.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絕.
祖關未透,心路不絕,
盡是依草附木精靈.
且道,
如何是祖師關.
只者一箇無字,
乃宗門一關也.

遂目之曰禪宗無門關.
透得過者,
非但親見趙州,
便可與歷代祖師,
把手共行,尾毛廝結,
同一眼見,同一耳聞,
莫有要透關底嫌.

將三百六十骨節,
八萬四千毫竅,
通身起箇疑團,參箇無字
晝夜提撕.莫作有無會,

如呑了箇熱鐵丸,

相似吐又吐不出.
蕩盡從前惡知惡覺,
久久純熱,
自然內外打成一片
如啞子得夢,只許自知,
驀然打發,驚天動地,
如奪得關將軍大刀入手
逢佛殺佛,逢祖殺祖,

於生死岸頭得大自在,
向六道四生中,遊戲三昧.

且作麼生提撕,盡平生氣力,

擧箇無字.若不間斷,
好似法燈,一點便著.

무문은 말한다.
참선은 조사 관문을 꿰뚫어야 하고,
미묘한 조사의 관문을 꿰뚫지 못하고
심로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귀신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해 보라!
어떤 것이 조사의 관문인가.
다만 ‘무’ 라는 한 글자가
바로 선종의 한 관문이다.

이것을 〈선종무문관〉이라 한다.
무문관을 뚫고 지날 수 있는 사람은
조주 스님을 직접 친견 할뿐만 아니라
역대의 조사(祖師)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하며, 눈썹을 맞대고
한 눈으로 함께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어찌 이 관문을 꿰뚫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삼백 육십 개의 뼈마디와
팔만 사천 개의 털구멍에
온몸으로 의심 일으켜 ‘무’ 자 참구해
밤낮으로 놓치지 말고 의심하라. ‘있다 없다’ 는 이해로 짓지 말라.
이 공안을 쇠구슬을 입에 문 것처럼 간직하라.
토하고 또 토해도 나오지 않게끔 하라.
그릇된 지각과 관념을 탕진해 버리고
오래 오래도록 순숙하게 하면
자연히 안팎이 한 덩어리 이어지는데
벙어리가 꿈 꾼 것같이 스스로 알 뿐
문득 드러나면 천지가 놀란다.
관우장군의 큰칼 빼앗아 손에 잡고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삶과 죽음의 언덕에서 큰 자유를 얻어
육도사생의 가운데에서도 삼매를 누리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고 있을 것인가.
평생의 기력을 다하여
이 ‘무자’ 에 매달려라. 만약 쉬지 않고 정진하면
법의 촛불에 불을 댕기는 것과 같다.

【頌曰】 狗子佛性, 全提正令. 纔涉有無, 喪身失命.

頌曰
狗子佛性,全提正令.
纔涉有無,喪身失命.

게송으로 말한다.
개의 불성, 불법을 온전히 드러냈도다.
조금이라도 유나 무에 걸리면 목숨을 잃는다

조사선(祖師禪)은 보리달마로부터 연유하는 선풍으로서 조사선의 조사는 본래 달마조사를 의미한다. 달마로부터 연유하는 그와 같은 조사선풍은 당나라 시대에 크게 발전되었다.

삶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상의 모습 그대로였다.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것 그 자체야말로 조사선 가풍에 가장 철저한 행위이고 인간의 꾸밈없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래서 조주는 신참자나 구참자나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차를 권했다. 어떤 사람이 차를 권하면 상대방은 그 차를 받아 마시는 것이 그대로 진리의 작용이고 깨침의 행위였다. 조주는 바로 그와 같은 도리를 일러준다. 그러나 차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도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승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토록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 곁에서 시봉하던 시자마저도 아직은 그와 같은 도리를 모르고 있었던가보다. 때문에 왜 신참자와 구참자에게 똑같이 차를 권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조주는 그와 같은 시자에게도 여전히 차를 권하였다. 그런데 시자는 그 차를 마시기 전에 다시 의문을 가졌다. 왜 자기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것인지를. 조주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제접하는 선사로서 대단히 능수능란한 수완을 지녔다. 그래서 소위 ‘조주고불(趙州古佛)’ 이라고 불렸다.

그 당시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국가가 사분오열되어 각축전을 벌이던 오대(五代) 시대였다. 조주가 오랫동안 주석한 하북성 조주의 관음현은 사통팔달 길목이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갔다. 때문에 진득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제자가 없었다. 그 점이 곧 조주가 모든 부류의 선자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어떤 선풍에도 얽매이지 않는 조주의 독특한 선풍을 진작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가풍의 형성은 조주가 일찍이 사미시절 때부터 대단히 뛰어난 선기를 지녔던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일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주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 지양의 남전보원을 참문했을 때였다. 남전이 누운 채 물었다.
“요즈음 어디 있다가 왔는가”
“서상원(瑞像院)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서로운 코끼리(瑞像)는 보았던가”
“서상은 보지 못하고 단지 누운 여래만 보았을 뿐입니다.”

누워 있는 여래는 곧 남전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자 남전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물었다.
“그대는 모시고 수행하는 스승이 있는가 없는가.”
“스승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스승이 누구인데 그런가.”

그러자 조주가 남전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했다.
“한겨울 엄동설한에 스님의 존후가 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남전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제스처였다. 이에 남전이 그릇으로 여겨 곁에 두고 가르쳤다.

어느 날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다.
“도(道)란 무엇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이니라.”

평상심이란 본래청정한 마음으로 애초부터 구비하고 있는 인간의 본래모습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와 같은 도를 가까이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면 곧 어그러지고 만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는 그것을 알고 모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안다면 망각(妄覺)이 될 것이고 모른다면 무기(無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심이 없이 도에 통달하고 보면 마치 만고불변의 허공과 같아 탁 트여 걸림이 없다. 그러니 어찌 억지로 옳다 그르다 하겠는가.”

이에 조주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회주〉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공고

입학문의 www.dongbang.org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Tel 02)745-2030 010-7236-0900 Fax 02)739-3470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 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불교학과(2년제 정규반) **모집인원** 00명
교육비 원서접수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0212-6468-11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특전
-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 동방불교대학 졸업후 사교/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7월 15일 ~ 8월 23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19년 8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19년 8월 27일(화) |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접수서류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한국불교 세계화 거점, 세계수행도량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⑮ 서울 화계사



개화된 문물이 빠르게 들어온 화계사는 숭산 스님 이후 한국불교 세계화의 거점이 됐다.

화계사의 개화승 차홍식

서울의 많은 사찰 가운데 일찍부터 세계화에 눈뜬 곳이 있다. 그곳이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화계사이다. 이곳 역시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다. 창건과 중창 때 왕실의 도움이 컸다. 근대에 들어서 1880년 11월 完和君 李獻公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궁 千氏 등이 화계사에 佛糧을 시주하는가 하면, 대왕대비 趙氏는 翼宗과 憲宗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계사 명부전에 불량토를 헌납하였다. 대비는 이후 1883년 12월 관음전에 佛糧을 시주하는 관심이 많았다. 이런 왕실과의 인연은 1866년 불전과 승방 건물들을 중수할 때 흥선대원군이 크게 시주하여 원찰로 삼을 정도였다.

이런 화계사에 개화승 차홍식이 있었다. 그는 18세의 어린 나이로 개화파에 가입하여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다. 그가 개화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분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을 비롯한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등은 왕실의 부마에서 자신들은 물론 선대 모두 벼슬을 하던 양반이었다. 그런 기득권층이 동지를 규합하는데 양반은 물론 중인 계급 심지어 자신들의 하인들도 참여시켰다.

그들은 경학을 배워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지만 불교에 심취하였다. 향후 불교의 평등사상이 부패에 빠진 조선을 구하는 희망으로 보았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는데 열심이었고, 개화파에 승려를 참여시켰다.

도성 내 많은 이목에서 벗어나 동지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사찰이 제격이었다. 그곳이 서쪽으로는 봉원사요 동으로는 화계사였다. 봉원사에 이동인이 있었다면 화계사에는 車弘植이 있었다. 그는 1882년 김옥균이 화계사에서 10일 정도 묵었을 때 그의 권유로 개화파에 가입하였다. 그 후 김옥균 집에 머물고 있다가 동남개척사로 일본에 갈 때 취반작찬(炊飯作饌)의 임무를 띠고 수행하여 일본에 갔다 왔다.

차홍식이 개화파에 가입하면서 김옥균은 화계사에서 개화파 인사와 해외 인사들이 만나는 곳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를 살았던 윤치호의 영문 일기를 보면,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인 1884년 가을 김옥균은 그의 동료인 서광범, 홍영식과 함께 천문학자로 조선을 여행하며 여러 여행기를 저술하여 미국에 우리나라를 알렸던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과 당시 주미공사관인 스쿠더(Scudder)를 화계사에서 만나 식사를 대접하며 해외정세를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렇게 화계사를 개화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운 차홍식은 거사 직전에는 서재필의 집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당일인 1884년 12월 4일 밤 국왕이 景祐宮으로 옮기자 다른 행동대원들과 함께 正殿 밖에서 보초를 섰다. 거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체포된 후에는 지정불고죄(知情不告罪)가 적용되었다.

화계사에서 김옥균과 탁정식의 만남

근대 이곳에 머물며 개화의식에 투철했던 수행자가 無不이다. 본명이 卓挺埴으로 아버지가 참판을 지낸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운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佛門에 들어왔다. 백담사에서 출가하여 강사를 지냈지만 일찍부터 개화된 문물을 알고자 화계사로 왔다. 이곳에서 운명적으로 개화파 김옥균을 만나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을 배우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았던 그는 넓은 세계를 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가 첫 번째 일본에 간 것은 같은 승려이면서 개화파였던 이동인이 일본의 변모된 사회와 국제정세를 파악할 때 그를 돕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일본행도 이동인이 韓美修好條約의 체결을 알선하기 위해 청국공사 何如璋을 만나러 갈 때 동행하였다. 1880년 11월 5일 원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임무를 마쳤지만 귀국하지 않고 神戶에서 영국 영사의 한국어 교사가 되었다. 동경으로 옮겨서는 영국 공사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주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양문물과 정세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였다.

세 번째는 신사유람단 13명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을 마치고 동경에 머물며 동경 외국어학교 교사로 취직하였다. 일본은 물론 당시 일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사절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을 통해 세계정세에 대한 흐름과 안목을 배웠다. 1882년 4월 김옥균이 일본에 오자 일본의 실정을 들려주었다. 임오군란으로 김옥균이 귀국하면서 울릉도 목재운반을 부탁하자 배를 구입해 神戶港에 왔으나 급병으로 1884년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가 병으로 일본에서 사망하자 당시 일본 재야인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던 福澤諭吉은 그가 항상 개화의 길에 관심이 많았으며, 국정에 밝아 한국의 사절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하였다.

숭산 스님의 세계화 원력

한국으로 세계 수행자 불러들여

한국불교 알리는 기회, 다시 삼아야

무불은 한국의 현실을 아직도 문명의 개화가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이 한국에 전해져 야만적 상태를 벗어나려면 서양의 문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의 습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이 급병으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불교인 가운데 하나였다.

화계사의 국제선원과 숭산

여느 사찰처럼 제법 역사성을 간직한 화계사이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국제선원이 있어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곳은 1991년 개원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 구도자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 한국의 선을 체험하려는 수행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지만 수행과정은 녹녹하지 않다. 엄격한 선방규율에 의거하여 하안거 및 동안거를 지내야 한다. 한국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매주 일요일 영어 참선법회 법문이나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수행한 외국인 승려 가운데 한국사찰의 조실과 주지를 맡아 한국인의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진정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라 말할 수 있다.

화계사가 진정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실이 된 것은 숭산 행원에 이르러서이다. 1927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한 그는 1947년 10월 마곡사에서 출가하였다. 1949년 1월 25일 고봉으로부터 법을 전수 받고 숭산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1958년 화계사 주지가 된 이래 불교정화운동 참여, 대한불교신문사 초대사장, 총무원 총무부장, 그리고 동국학원 이사 등 교계 안팎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가 1966년 일본에 홍법원을 개원한 이후 한국불교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 시작은 작은 데서 비롯되었다. 종단 소임을 맡아 중구 초동 동국대 기숙사를 허물고 새집을 지으려 할 때 지하실에서 4천여구의 일본군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곳이 일본 서본원사의 별원이었던 까닭에 전몰장병의 유해가 안치되었던 것이다. 화계사로 옮겨다 놓은 유골이 일본으로 반환되고, 이 일을 계기로 일본에 건너간 숭산은 재일교포들이 일본불교를 믿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였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일본포교를 결심하였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일본인 신도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동경에 홍법원을 개원할 수 있었다. 이곳은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의 거점이 되었으며, 일본에 유학한 한국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이곳이 번창하자 숭산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인연은 그로 하여금 다른 나라로 가게 하는 인연을 만들었다. 그것이 1968년부터 절을 짓기 시작해 2년 뒤에 개원한 홍콩 홍법원이다.

숭산의 한국불교 세계화는 미국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홍콩 홍법원이 마무리되자 미국포교를 제안 받았다. 1972년 봄 초청장과 비행기 표를 받은 숭산은 잠시 머물 생각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곳의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미국에 도착해 조그만 아파트를 얻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하였다. 영어를 하지 못한 선사는 통역을 통해 선을 설명하였다. 그러는 사이 참선을 배우러 찾아오는 신자가 늘어 아파트를 옮겼다. 공간이 넓어지고 미국인들에게 불교를 잘 전달하는 통역자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

좋은 일이 많아지면 싫거나 어려운 일도 많아지는 법이다. 미국은 한국의 신앙풍토와 달라 시주하는 신도가 없었다. 당연히 재정은 어렵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숭산 자신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세탁소에 나가 돈을 벌었다. 미국인 신도들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참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선하고 일터로 나갔다. 그러는 가운데 참선을 지도하고, 금요일 밤에 정기법회를 하면서 1972년 9월 뉴욕에 홍법원을 세웠다.

미국에 한국불교를 알린 숭산의 발길이 향한 곳은 유럽이었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수많은 곳에 도량을 건설하고 한국불교를 알렸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브라질 등 남미까지 전 세계 32개국 120여개의 홍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벽안의 납자와 제자들을 두었다. 가히 세계를 포교한 분이라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화계사에 국제선원을 두고 한국으로 세계의 수행자를 불러들였다. 숭산이 이처럼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만공으로부터 전해진 世界一花의 서원 때문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해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행의 올곧음이 살아있고, 오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불교문화의 우수함이 해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호평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동양문화라고 낮게 보는 편견 속에서 한국불교를 알려온 결과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신장한 국력이 보태지면서 이젠 세계인이 우리의 불교를 배우러 오고 있다.

훌륭한 결과는 쓰라린 아픔을 담고 있는 법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자신의 숙명처럼 처음 걸어가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불교를 배우러 오고, 한국의 불교문화를 보고 찬탄할 것이다. 그런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토대를 만든 선구자에 대한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기에너지체=기공)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자비도량참법기도]는 나의 잘못 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허물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는 참되고 순수하며 절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든 생명을 위해 회향하여
온 누리가 자비로 가득 차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1차 백일기도 5월 28일 (화) ~ 9월 4일 (수)
2차 백일기도 9월 5일 (목) ~ 12월 13일 (금)
3차 백일기도 2019년 12월 14일 (토) ~ 2020년 03월 22일 (일)
백일 단위로 열 번 이어집니다.

동참비 · 가족축원 10만원
· 영가 1위당 1만원
계좌번호 농협 851-01-225116
예금주 : 구룡사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 룡 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팩스 055)255-6359

깊은 연기로 내일을 본다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⑮ 과거를 후회하는 그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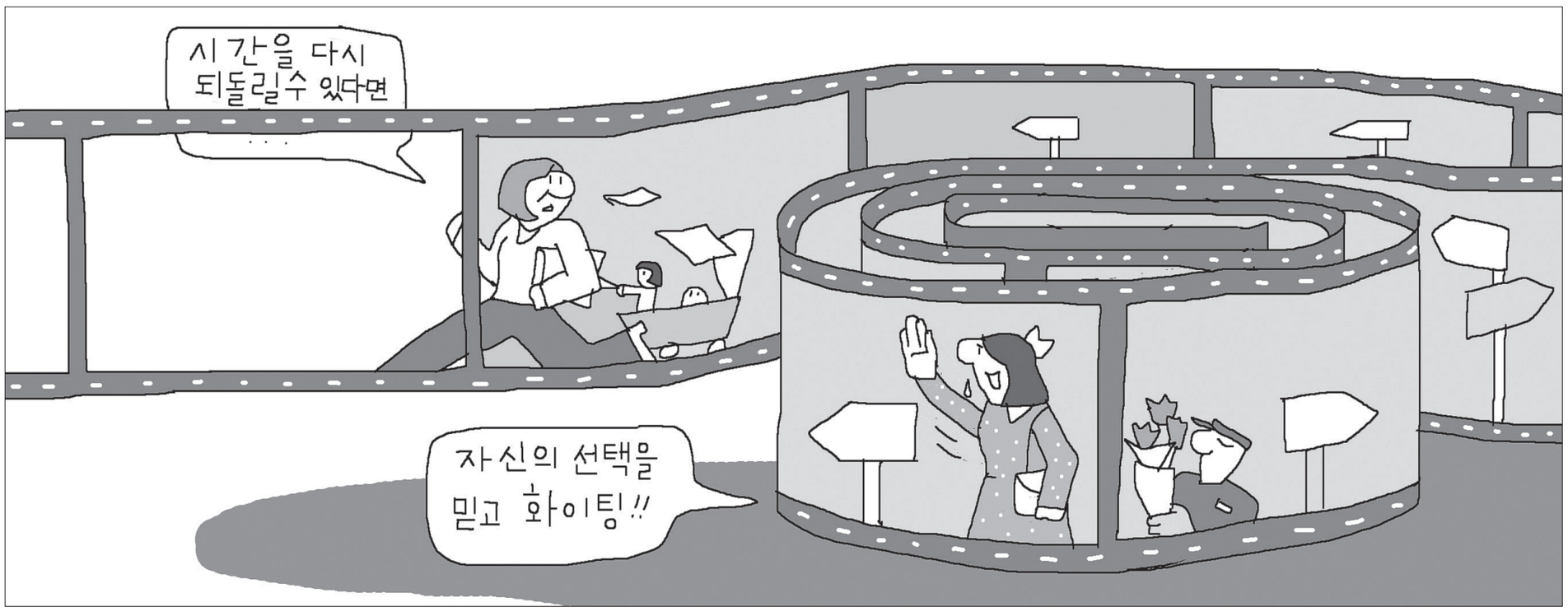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한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기욤뮈소의 소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예순 살의 남자가 시간여행으로 서른 살의 자신을 만나서 평생 후회하는 과거의 한 순간을 바꾸는 이야기이다.

시간과 사랑에 대한 이 소설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은 더없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한편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에 흘러간 과거를 변명의 핑계로 삼는지도 모른다.

주인공 엘리엇은 명망 있는 외과의사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회한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부터 구해내지 못한 것이다.

30년 전 연인 일리나가 크리스마스 날 꼭 보기로 약속한 엘리엇을 만나러 4천 km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지만 의사 엘리엇은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일리나의 마중의 못 가게 된다. 화가 난 일리나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간다. 그리고 그 날 일리나는 자신이 수의사로 일하는 수족관으로 가서 범고래를 돌보던 중 범고래에 치여 숨지고 만다.

폐암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60대의 된 엘리엇은, 30년 전의 그녀 일리나가 더욱 그리워진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신비의 노인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알약을 얻게 된 엘리나는 과거로 가는 기회를 선택한다. 깊은 잠에 빠지면서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 엘리엇은 과거의 자신과 일리나를 만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미래를 함께 할 수는 없다. 엘리엇에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다. 만약 일리나를 살려 자신과 함께 하게 되면 지금의 딸, 소중한 앤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고민하던 엘리엇은 결국 일리나를 살린 후 미래의 딸 앤지를 위해 일리나와 헤어진다.

기욤 뮈소는 이 소설에서 시간의 장벽을 통과하여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인간을 그려 보인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시간여행'을 실제로 경험하는 주인공에게 쉽게 감정이입을 하며 각자의 시간여행을 해보게 될 것이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친구의 고백

영화를 보고 친구 몇몇이 모여 과거로 돌아가 단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로 대화를 나눴다.

아예 태어나지 않겠다는 염세주의부터, 남편과의 소개팅에서 애프터신청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족집게 개선까지 있었다. 스무 살 여대생으로 돌아가 지금과는 다른 멋진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리셋 형도 있었다.

결혼 후 아이 둘을 낳고 10년 만에 이혼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버텨온 친구는 자주 과거를 바꾸는 상상을 해본다고 고백했다.

35년 전 초가을의 어느날 그녀는 남도 항구도시로 가는 기차를 타기로 결심했다. 군복무 중이었던 남자친구는 그녀가 입대 1년 만에 면회를 간 그날 하필 서울로 특별휴가를 나가 있었다.

"그 날 남자친구를 부대에서 면회하고 왔으면 그렇게 절실하진 않았을 거야. 부대에서 신작로까지 한참 걸어 나오던 한적한 시골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많이 슬프고 외로웠어, 서울행 기차를 타고 곧장 돌아오면서 그날 반드시 그를 만나야만 할 것 같았어. 왕복 열 시간 넘게 혼자 기차여행을 하면서 그리움이 커져갔고 그 사람이 아주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졌지. 그 갈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아닐까 하고 뒷날 그 시간을 돌이키곤 했지."

서울로 돌아와 그날 밤 연락이 닿은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 남자와 미래를 함께 하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하게 된다.

그녀는 가끔 상상한다. 그 때 항구로 가는 기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집으로 돌아와서 애타게 그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뷰티숍과 골프장을 오가는 유한마담이라도 되었을까. 오래 된 연인에서 가족이 되는 세상의 모든 커플을 한심해 하며 독야청청 늙어가는 독신여성이라도 되었을까. 가지 않은 길은 늘 강렬한 매혹의 색깔을 띠고 있다.

하나의 선택이 초래하는 결과
인생은 복잡한 인과의 실타래
현재 머물며 계속 온힘 다하자

작은 날갯짓이 수많은 변수가 되는 나비효과

우리는 한 순간의 선택이 태풍이 되는 나비효과의 인생을 살고 있다. 브라질에서 잠시 펄럭였던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로 건너와 엄청난 돌풍이 되었다는 나비효과는, 사소한 사건이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온다는 뜻만은 아니다. 하나의 선택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의 선택은 여러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결과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해도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가 그때로 돌아가 그 기차를 타지 않고 현재로 돌아오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고 하자. 다른 35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은, 또 다른 가지 않은 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그와 이루었던 아름다운 시간은 없었을 테지. 무엇보다 내 소중한 두 아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돌아가도 바꿀 수 있을지 자신은 없어."

〈당신…〉에서는 사고로 죽어 평생 못 잊는 여인을 살리지만 바뀐 과거의 나비효과로 자신의 현재는 뒤죽박죽되어 있다. 이 영화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결국 현재라는 것을 역설로 말한다.

가끔씩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친구에게도 아직 너무 많은 선택이 남아 있음을 말해주고 싶다. 자신이 했던 오래 전의 선택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그 날갯짓을 계속하게 된다. 다만 기억할 것은 그 선택에서 무엇을 원했는가, 이며 그것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가, 가 아닐까. 그 남자를 선택하고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가기로 결정하고 싱글맘이 되고 두 아이를 억척스럽게 키우면서 쌓아온 시간, 이 모두가 수많은 변수가 되어 나비효과로 그녀의 현재를 만들고 나아가 미래를 완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 책에서 인용한 수산나 타마로의 글은, 마음이 가는 곳을 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네 앞에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네가 세상에 나오던 그날, 그날 내쉬었던 자신 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그리고 마음이 너에게 이야기할 때 그 때는 마음 가는 곳으로 가라"

기다리고 기다려서 마음이 가는 곳을 택한 신중한 선택은 계속 정진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 선택의 신중함은 곧 미래로 내딛는 발걸음에 온 힘을 쏟음을 뜻한다.

연기 속에 있는 삶, 온 힘으로 계속 나아가야

어제가 있어 오늘이 있는 연기는 우리 모두 깨닫고 있는 불법이다. 이 단순한 이치는, 홀로 존재함 없이 모두가 종과 횡으로 얽혀 있어 계속 나아가고 변해간다는 진리로 거룩해진다. 모두가 의존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공의 상태에 이르는 연기는, 거꾸로 보면 모둔 것에 각기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를 돌이키고 싶다는 그녀에게도, 애초부터 헤어진 남편이, 두 아이가, 그리고 지금의 그녀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연기를 말할 수 있다.

연기의 법칙에 시간이 개입하면 더욱 변화무쌍해진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무상하다. 지난 과거는 자취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가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된다. 오늘을 되돌려 어제로 가는 일은 가지 못하는 길이다. 오늘을 살아 내일을 만드는 연기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과거를 후회하며 고통에 빠지기보다 현재에 머물며 온 힘으로 계속 나아가는 일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허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법구경〉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수 천번 반복하는 내 염불 !

내 귀에 힘들면 질병! 내 귀에 편안하면 신명! (소리공학 논문에서)

수없이 봤지만 일반 기존 시설은 가격도 몇배지만 소리공학적으로 염불정서에는 도대체가 맞지 않아 질병을 부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결책 : 반드시 소리구경 조건으로만 부른 후 법당에서 견본품으로 충분하게 소리 비교를 해본 후 시설 상담을 하시면 가장 확실한 성공시설이 됩니다.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일천여곳 형편따라 소리공학 맞춤시공 (방문시 명단제공)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현장체험 후 마이크만 구입 가능!
본 마이크는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장기할부 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소리공학 전공, 명품스리훈련 원장, 전화상담)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육사외도 타파하며 불교 정립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⑮ 부처님 당시 상황 및 사상



그림 · 강병호

기원전(B.C) 1500~2000년 경 인도에서 베다 문명이 완성된다. 인도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한 종교인 브라만교는 바로 신에 대한 예찬이고 신에 대한 종교이다. 이것은 B.C 2000년에 시작해서 B.C 1500년에 완성되어 인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브라만교이다. 그런데 B.C 5~6세기쯤 되니까 인도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일어나게 된다.

육사외도라는 사상가들이 출현한다. 인도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상가 여섯 명의 육사외도다. 부처님을 포함시키면 사상가 그룹이 일곱 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사상가를 육사외도라고 표현한다.

신화에서 인간으로

부처님께서 12처나 18계를 주장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육사외도 때문이다. 육사외도를 타파하면서 불교가 성립된다. 이것이 불교가 성립되는 사상적, 환경적 상황이다. 육사외도의 생각과 부처님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 때 사고가 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교통사고가 났는가? 전생 인연과 이 부분을 무시한다면 사고가 난 것은 아무런 인과도 없이 그냥 사고가 난 것이 될 것이고 또 숙명론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불교에서는 전생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분명히 인연과가 있음을 배웠다. 인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나타난 '과'인 것이며, 분명히 전생이나 현생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게끔 인과 연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과'가 나타난 것이다.

분명하게 내게 교통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어떤 인과 연을 지어서 '과'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은 과는 숙명론이냐, 운명론이냐 무엇이 되는가. 내가 받게 될 과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죽든지 다치게 되는 것은 운명론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인과 연을 내가 지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죽을 수 있고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상처가 조금 날 수도 있고 혹은 차만 조금 상하는 정도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란 것은 이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처와 18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인과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이생에서 전생에 지은 그 인연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혹은 경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만 조금 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생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과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업이 내게 축적되면 축적된 업력에 의해서 어떤 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뚱이 속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도 60% 갖고 있고 지옥에 갈 성품도 40% 갖고 있다. 내가 암에 걸릴 확률도 45% 갖고 있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확률도 55%다. 이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갖고 있는 45%를 통해서 조합이 잘 맞아 떨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술을 마시고 생활이 제멋대로이면 조합이 잘 맞아 떨어져 암에 걸리지만, 반대로 내가 45% 암에 걸릴 확률을 갖고 있지만, 규칙적이고 바른생활을 한다면 암에 걸리지 않고 이생을 살 수 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 정진을 하는 바른생활을 한다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과보는 다르다.

> **업이 축적되면 어떤 과를 받는다**
> **우린 부처될 수도 지옥갈 수도 있다**
>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 **삶의 방향과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육사외도들– 아지타

아지타는 유물론적인 단견외도로서 세상을 지수화풍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부정하고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과와 과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이다. 과보도 없고 다음 생도 없는 모든 인연과를 부정한 사상가가 아지타이다. 부처님의 사상은 이 육사외도의 사상을 깨뜨리면서 불교가 이뤄진다.

육사외도들– 파쿠다라

파쿠다라의 사상은 지수화풍에다가 고락명을 덧붙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쿠다라는 '무인외도'다. 여기도 인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신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수화풍 고락명의 고는 괴로움의 덩어리, 락은 즐거움의 덩어리, 명은 생명의 덩어리, 이것들이 함께 일곱 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느끼는 수용자의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괴로우면 괴로운대로 즐거우면 즐거운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자는 평등이론을 주장하였다.

육사외도들– 막칼리

막칼리는 지수화풍 · 고락명에 생사득실을 더한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고 내게 득이 되고 내가 잃고 하는 득실을 더한 외도가 막칼리로 '사명외도'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끝내시고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다. 열반에 들기 전에 부처님과 더불어 많은 제자가 모두 다른 길로 전도를 떠난다. 부처님의 가장 큰 제자인 가섭도 전도를 위해서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바로 사명외도인 막칼리를 만나고 막칼리는 가섭에게 너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열반했다고 말한다. 가섭은 사명외도의 말을 듣고 포교의 길을 접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사라쌍수로 달려간다. 가섭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10일 만에 도착하게 된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가섭이 돌아와서 "부처님이시여"하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그 상태에서 두 발이 관 밖으로 나온다. 바로 선불교의 뿌리가 되는 삼처전심 중 하나인 화두 '곽시쌍부'이다.

육사외도들– 푸라나

푸라나는 숙명론을 주장한다. 푸라나를 따르는 무리들을 '숙명외도'라고 한다. 푸라나는 사람의 빈부귀천, 선악부정 등 인간행위는 숙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숙명론은 받아들이기가 쉽다. 잘못하면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데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숙명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푸라나며 그것을 따르는 무리가 숙명외도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빈부귀천이 정해져 몸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육사외도들– 니간타

니간타는 지금도 인도에서 존재하고 있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이다. 부처님 당시에 두 개의 종교가 탄생한다. 아직도 인도사회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나칸타는 물질과 정신이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교의 인과와 유사한 부분도 많다. 니칸타는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물질과 정신이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정도 연기에 접근해가고 있는 이론이 나칸타의 주장이다. 니칸타를 따르는 무리를 '나형외도'라고 한다.

나형외도들은 태초부터 정신과 물질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립하고 사람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당시 부처님처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니간타다. 니간타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도 바로 부분적인 인과를 주장한다.

니간타는 나름대로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깨쳐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인도에는 지금도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인간이 나름대로 집단을 이루어서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종교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 분명한 그 목표가 부딪치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지구상 종교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종교는 불교이다. 그 당시 부처님처럼 니간타도 깨친 성자로서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후 승단이 구성된 이후 니간타는 불교를 비난했다. 표적의 대상인 불교를 무너뜨리고 조로아스터교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다.

육사외도들–산자야

산자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거느린 사람으로 약 200명이나 된다. 산자야의 제자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사라불과 목련존자가 있었다. 하루는 부처님의 제자인 마성이 길을 가는데 마성의 거룩한 모습에 사라불과 목련이 반해버린다. 그리고 마성에게 묻습니다. "너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 너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고 묻자 마성이 말하기를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고 연기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연기를 사라불과 목련에게 설명을 해 준다. 사리불과 목련은 그 자리에서 연기를 인식하고 터득한다.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이 "우리는 산자야를 스승으로 모실 수 없다고 하면서 더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부처님에게 귀의했다.

산자야의 20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자야를 따르는 무리는 여기에 남고, 나와 같이 부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니 200명의 제자들이 모두 사리불과 목련을 따라 부처님에게로 갔다. 갑자기 부처님의 제자가 인도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250명의 집단이 된다. 개인으로 최초의 출가자는 야사이다. 뛰어난 청년인 야사가 출가함으로써 인도사회의 가장 부유층이자 지식인층을 이루었던 50명의 청년들이 야사와 더불어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가섭 삼형제 1000명, 산자야 200명 합하여 집단으로 출가한 제자들이 1250명이 된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영남대 의대 교수〉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 6F, 35, Haeyang-ro 247beon-gil, Yeongdo-gu, Busan

타인을 생각하며 살자



新 불교사자성어

㉘ 선용기심(善用其心)

선용기심(善用其心)은 '마음을 잘 쓰세요' 라는 뜻이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경전인 〈화엄경〉 정행품(淨行品)에 있는 명구로서,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고, 마음을 잘못 쓰면 어렵고 가난해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행품이란 올바른 불교적인 삶의 자세, '바른 행실' 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 품(品, part)이다.

얼마 전의 일이다. 서울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동숭동 원불교 교당 앞을 지나가는데 교당 앞 게시판에 붓글씨로 크게 써진 문구를 보았다. '마을을 잘 쓰라' 는 문구였다. 문득 택시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명언, 명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념적인 어려운 말보다는 이런 말이 실천적인 행동을 가능케 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며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마음을 잘 써야 한다(善用其心)' . 용심(用心) 즉 마음 씀이(用心) 바르지 못하면 첫째는 사람대접을 못 받게 된다. 뿐만 아니고 삶이나 생활의 기반도 잡지 못하게 되고, 인생도 사업도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매우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마음 씀이 바르지 못한 이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지는 몰라도 '마음을 잘 못 쓰면 망한다.' 는 뜻이기도 하다. 인성교육, 가정교육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될까(善用其心)? 물론 그것은 선심(善心), 곧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자비심, 측은지심을 말한다.

나 아닌 만물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자비심, 측은지심,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일이다. 그러면 분노나 질투, 증오심 등 좋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필자가 이 연재에서 몇 번 인용한 우리나라 속담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말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 정상적인데, 배가 아프다고 하니,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즉 용심(用心)을 대변하는 속담이기도 하다. 그 속담처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 남이 잘되면 복통을 일으킨다. 백약이 무효이고 오직 뒤에서 갖가지 장난을 치는 것이 그에겐 특효약이다.

마음을 잘 쓰면 복이 들어온다. 반대로 마음을 잘못 쓰면 복이 나간다는 뜻이다.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비심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口是禍門)' 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의(不義)를 보고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좋다. 정의를 가지고 불의와 맞서는 것은 훌륭한 행동이다. 그러나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화(禍)를 불러일으킨다. 스스로 악의 근원을 만들게 된다.

조선시대 정쟁(政爭)으로 귀양을 가거나 사약을 받은 관료나 학자 가운데는 누명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누명을 씌운 사람들 대부분이 소위 훌륭한 학문을 했다고 하는 주자학자나 유생들이었다. 상대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함, 모략, 날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조선시대 유명했던 '4대 사화(士禍)' 는 거의 대부분 모함에 의한 것이었다.

성인(聖人)이 되는 훌륭한 학문을 했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서자서 아자아(書自書 我自我)' 였기 때문이다. 글과 인격이 동행했던 것이 아니고,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였기 때문이다.

마음을 잘못 쓰면 고생을 하게 된다. '좋은 사람' 이라고 소문이 나야지 '좋지 못한 사람' 이라고 소문이 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없게 된다.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이 부족해서 남을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해도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 타인을 헐뜯는 말, 흠집내기식의 말 등 악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불자들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다. 마음을 잘 쓰는 것, 그것이 곧 〈화엄경〉에서 설하고자 하는 '선용기심(善用其心)' 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간절히 얻고자 하면 묻지 말라



격절록 강설

㉘ 제 10칙 서당난각(西堂爛却)

[古則과 着語]

擧, 僧問西堂 "有問有答 賓主歷然 無問無答時如何" (師低頭作應聲) 西堂云 "怕爛却那" (也是草裏漢) 又問長慶 "有問有答 賓主歷然 無問無答時如何" (也不得放過) 慶云 "相逢盡道休官去 林下何曾見一人" (也善東瞥西瞥)

어떤 스님이 서당(西堂)에게 물었다.

"물음이 있고 답이 있으면 손님과 주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음도 없고 답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스님(서당)이 머리를 숙이고 소리에 응하는구나.]

서당이 말했다.

"문드러져 없어질까 두려운가?"

[역시 시원찮은 놈이다.]

또 장경(長慶, 장경혜릉, 854~932)에게 물었다.

"물음이 있고 답이 있으면 손님과 주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음도 없고 답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장경이 말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관직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숲에서 언제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참 잘도 한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何不與本分草料" (且道 作麼生是本分草料)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어째서 본분초료(本分草料)를 주지 않는가?" [자, 말해보라! 어떤 것이 본분초료인가?]

[評唱 1]

師云. 不墮心機意想 如何得平穩去. 古人道 "欲得親切 莫將問來問 何故 問即似偷人物了"

심기(心機, 마음)와 의상(意想,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평온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고인이 말하기를 "몸소 간절히 얻고자 하면 물음으로 묻지 말라(欲得親切 莫將問來問)"고 하였다. 왜냐하면 물음(問)은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선문염송집 제25권(고칙 1110)에서는 상기 본칙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長慶因僧問 "有問有答賓主歷然 無問無答時如何" 師云 "相逢盡道休官去 林下何曾見一人"

(번역은 상기와 같아서 생략한다)

雪竇顯擧此話 幷擧僧問西堂 "有問有答賓主歷然 無問無答時如何" 堂云 "怕爛却那" 師云 "何不與本分草料"

설두중현이 이 이야기(장경에게 물은 것)를 거론했다. 아울러 어떤 스님이 서당에게 "물음이 있고 답이 있으면 손님과 주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음도 없고 답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서당이 "문드러져 없어질까 두려운가?"라고 한 것을 거론하고는, 선사(師, 설두)가 말했다.

"어째서 본분초료를 주지 않는가?"

상기 본칙과 〈선문염송집〉에서 전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서당(西堂)은 장경혜릉(854~932)과 동시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당(西堂, 서당지장 735~814)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설두스님이 보다 더 상세한 염을 하기 위해 과거의 경우를 소개한 것이 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㉘ 이해의 길 8

12연기, 인간의 실존

연기는 불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철학적 사유다. 모든 것은 홀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붓다의 통찰이다. 이러한 연기의 진리가 모든 존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이를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한 것이 바로 12연기다.

'무엇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늙고 죽는 것이 있을까?'

싯다르타를 출가로 이끈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이다. 이러한 생로병사의 과정을 불교에서는 '고(苦)' 라는 한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하였다. 12연기는 '생로병사는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緣) 일어나는(起) 것일까?' 에 대한 실존적 해답이다.

12연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근본불교의 입장에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12지(支)라고도 불리는데, 무명(無明) · 행(行) · 식(識) · 명색(名色) · 육입(六入) · 촉(觸) · 수(受) · 애(愛) · 취(取) · 유(有) · 생(生) · 노사(老死)가 그것이다. 이 12가지 고리가 서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인간의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고통을 일으키는 연결고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끊어내는 것이 12연기의 목적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1)앞의 둘인 무명과 행, 2)중간의 식(識)에서 유(有)까지 여덟 개, 3)마지막 둘인 생과 노사로 나누어 살펴볼까 한다. 먼저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 했다. 이는 글자 그대로 밝음(明)이 없는(無), 즉 어두운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명으로 말미암아(緣)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두 번째인 행(行)이다. 우리가 몸(身)과 입(口), 마음(意)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에너지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다음의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업(業)이라 한다. 예컨대 접촉사고를 낸 후 속상한 마음에 친구와 술 한 잔 마시다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연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동차 사고의 영향력(業)이 잠재해 있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세 번째 식(識)부터 열 번째 유(有)까지는 대상과 만나면서 업을 짓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식은 눈, 귀, 코, 입, 몸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다. 그런데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네 번째 명색(名色)이다. 여기에서 명은 정신적인 것이며, 색은 물질적인 대상을 가리킨다. 다섯 번째 육입(六入)은 앞서 언급한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이다. 이 인식주체가 객관대상과 만나는 것이 여섯 번째 촉(觸)이다. 그리고 대상과 만나면서 받게 되는 느낌이 일곱 번째 수(受)이며,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좋다거나 싫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단계가 여덟 번째 애(愛)이다. 대상과 만나면서 좋은 것은 갖고 싶고, 싫은 것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심해지는 경우다. 이러한 애착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홉 번째 취(取)이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둑질이나 폭행 등으로 나타나는 단계다. 열 번째 유(有)는 이러한 행위는 사라지지만, 그로 인한 에너지가 무의식 속에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단계다. 잠재된 에너지는 반드시 다음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가 바로 이것이다.

열한 번째 생(生)은 잠재된 에너지가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 열두 번째는 노사(老死)인데, 단순히 늙고 죽음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걱정 등 인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12가지 고리들이 어떤 과정으로 작동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곧 중생들의 윤회하는 삶의 모습이다. 삶이 괴롭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벗어나는 길도 보이는 법이다. 불교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離苦得樂) 데 있다. 12연기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그 원인부터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타래가 다음 호에서 풀어질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진신사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승은 경기도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서진이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시게 되어 1988년부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깊은 불연으로 사리탑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신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하고 바로 봉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신사리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인사하고 들어가셔야 하신다며 전국 사찰로 파발을 보내면 참다운 당신의 제자들이 인사하러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제자들을 다 만나면 알려줄 터이니 그때 봉안하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아 소승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어 일단 지면상석가모니 부처님의 참제자이신 한국불교대덕큰스님들께 진신사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적멸보궁 오봉사 | 주 지 군맹서진 합장

진신사리친견 안내

개별친견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8월은 8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구에서 오전 8시 버스출발 (왕복 2만원)
- 친견 예약은 02-532-0012(강남불교대학) 또는 홈페이지(http://gangnambu.org)에서 3일전까지 예약 바라며 예약하지 않거나 10시 이후에 오시면 친견하실 수 없습니다.

단체친견
- 30명 이상의 단체친견일 경우,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Tel. 02-532-0012 강남불교대학

오봉사 진신사리의 유래는 유튜브채널 강남불교대학에서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반가사유상 재현해 천불전 봉안

군산 동국사, 미륵보살 · 천불 점안법회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가 천불전 미륵보살 및 천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7월 26일 동국사 천불전에서 열린 점안법회는 순천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을 증명법사로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해 염불사 행담 스님, 보천사 의종 스님, 수도암 무진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종범 스님, 종혜 스님, 자운 스님 등 벽송문도회 스님, 불자 150여 명이 동참했다.

종걸 스님은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스님과 불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동국사 천불전의 주불인 미륵보살상은 국보 78호 미륵반가사유상을 3D로 재현해 봉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무역전쟁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단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극일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염불 철야정진, 삼매 이끌다"

고창 선운사, 동효 스님 염불수행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27~28일 '동효 스님과 함께하는 아미타 염불수행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설법전에서 봉행된 이번 철야정진에는 임실 상이암 동효 스님의 지도로 그동안 상이암에서 철야정진을 이어온 불자들과 선운사 관음회 등 150여 불자가 동참했다.

입재식에서 선운사 기획국장 진용 스님은 "선운사는 개산 이래 선교가 이어져 내려온 수행도량"이라며 "유서 깊은 도량에서 철야정진에 임하는 불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효 스님은 "습관이 쌓여 업이 된다. 처음 염불하는 법을 제대로 익혀 수행정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모든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삼매에 들기 위해 간절하게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철야정진은 절을 하며 염불하는 배불염불, 줄을 지어 걸으며 염불하는 경행염불, 자리에 앉아 염불하는 좌념염불이 각각 30분씩 교차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USB 음반 보급 쉼 없는 문화포교"

Interview

7집 찬불음반 낸 자명 스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문화공양주'로 불리는 자명 스님(영덕 기원정사 주지)이 7집 음반 '길 위의 연인'을 발표하고 음악을 통한 문화포교를 이어가고 있다.

땡큐 붓다콘서트,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를 비롯한 과감하면서도 실험적인 문화포교를 이어왔던 자명 스님이 1년여의 작업 끝에 발표한 이번 7집 음반은 불교음악계 최초로 USB 음반으로 발매됐다. 또한 멜론, 벅스, 지니 등 디지털음원 포털에 음원을 모두 올렸다.

한국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 정서인 한(恨)을 대중음악에 접목시킨 곡들로 구성된 이번 음반에는 '길 위의 연인(심재건 작곡, 서희석 작사)' '아버지(김도연 작사 · 곡)' 신곡과 '향심' '연꽃피어 오르리' '가야지' 등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 찬불가를 포함한 9곡을 기존에 발표한 42곡과 함께 실었다.

"우리 불교의 저변은 여러 면에서 볼 때,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불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문화를 이용한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음반을 비롯해 제가 그동안 이어온 일련의 노력들은 '문화포교'라는 큰 불사의 성과와 함께 포교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온 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 위의 연인' 등 9곡 수록

불교음반 최초의 USB 앨범

내년 6월 뮤지컬 앵콜 공연

2012년 찬불가 음반 1집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을 발표하면서 음악을 통한 문화포교를 시작한 자명 스님은 2013년부터 '땡큐 붓다콘서트'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 등 매년 새로운 문화포교 프로젝트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공양주'로서의 원력을 회향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서울 더케이아트홀에서 있었던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는 대작불사로 회향했다.

'문화공양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자명 스님은 "문화포교를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려고 한다. 불교에 국한되지 않은 문화교류를 통해 자연스러운 포교를 하고 싶다"며 "올 가을 국악인 등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공연한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의 앵콜 공연을 내년 6월 중으로 공연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7집 음반이 점점 불성에서 멀어지는 오늘날의 우리 영혼을 달래고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자명 스님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며 "우리 불교가 가진 우수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우수한 문화적 콘텐츠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문화포교의 원력을 밝혔다.

이번 7집 음반이 USB 음반으로 발표된 취지는 '판매'의 의미보다는 '보급'의 의미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음악을 알리고 그를 통해 포교를 이루기 위함이다. 음반 신청 / 010-9343-3001(자명 스님).

세계수영관계자도 "사찰음식 엄지 척"

고불총림 백양사, 쌍계루 일원서 수영선수권대회 사찰음식 만찬

불교의 청정음식을 세계 스포츠인에게 알리는 행사가 사찰에서 열렸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지)는 지난 7월 25일 경내 쌍계루 일원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찰음식 만찬'을 개최하고, 대회에 참여한 세계 수영스포츠계 임원들에게 불교 고유의 식사법인 발우공양과 사찰음식을 대접했다.

사찰음식 대가인 정관 스님(천진암 주지)이 제철음식 재료를 직접 손질해 만들어낸 7가지의 음식과 2가지의 차, 그리고 3가지의 후식으로 구성한 발우공양에 외국 스포츠인들은 연신 "아름다운 정신이 만들어낸 예술과 같은 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사찰관람과 기념식, 발우공양 소개, 만찬, 후식, 연꽃차담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등 전통 국악공연도 함께했다. 이날 발우공양에는 샘 람사미 국제수영연맹(FINA) 부회장을 비롯해 150여 명의 세계 수영연맹 임원들이 참여, 한국불교의 독특한 식사법을 체험했다.



백양사 사찰음식 만찬에 참여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계자들.

이날 직접 음식을 만들어낸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마음과 육체적 에너지가 연결된 음식이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관 스님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을 시연하고, 화덕에 멥쌀을 곁들인 감자밥과 능이버섯 콩나물국, 평창올림픽 배추김치, 토마토 장아찌, 송이버섯 솔잎구이, 우엉간장 조청구이, 연근 오미자청 절임, 갯방풍나물잡채를 찬으로 하고, 백양사 비자숲 황차, 솔잎차 등을 만들어 대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고불식

7월 30일 포살법회도 "한국불교 중흥" 다짐



해남 대흥사는 7월 30일 대웅전에서 '불기 2563년 하안거 포살법회'와 주지 고불식을 봉행했다. 주지 법상 스님은 "대흥사 사부대중 화합과 불교발전이라는 큰 원력을 바탕으로 사심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맞게 살겠다"며 "대흥사가 호국도량으로서 종지를 구현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 이해 돕는 어린이캠프

전주 참좋은우리절, 유치원 · 초등학생 대상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7월 26~28일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캠프를 개최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다문화가족 어린이, 지도교사 등 70여 명이 참가한 캠프는 지도법사 진서 스님 지도 아래 창의력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발우공양, 역할극, 미니올림픽, 물놀이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조계종, 하안거 수계법회

구족계 8명, 사미계 2명, 법사계 6명 배출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7월 21일 여주 백화사에서 스님과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안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식에서는 구족계 8명, 사미계 2명, 법사계 6명 등 총 16명이 계를 받았으며,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역사를 돌아보면 수차례의 일본 침략 때마다 불교계가 앞장서 나라를 지켜냈다. 이번 경제보복도 힘을 합쳐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6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개강일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장소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수강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기간 6개월 과정
교육내용 상용의식 및 재의식 사물 다루는 법
수강자격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수강료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준비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문의전화 010-3867-8419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 원명 합장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56호 | A13 | 전면광고

무거운 돌을 연못에 던져 놓고,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아무리 축원을 한들, 어찌 무거운 돌이 물 위에 떠 오를 수 있으랴.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 ◆ ◆
1.전통 사찰 등록 서류대행
2.개인 비영리 법인 등록
3.종교법인 등록
◆ ◆ ◆
010-9476-9001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특수기도비술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 · 외제차 · 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010-9422-1233
경남종무원 - 창원 010-4582-3366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모셔드립니다
스님 입적하신 후 모실 곳이 없는 스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공주 지장사
010-5363-3755

구인광고
- 기도 부전스님 구함
- 행자. 처사 구함
부산 현대불교 금정원
010-3840-4355

극락도량
극락도량에서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절에서 사실 신심있는 보살님을 모십니다!
55세 미만
010-6536-0120

사주풀이(모집)
효보당 사주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푼다
- 왜왔는가,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 과거/현재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 스님. 무속인. 철학인. 법사 대상
- 특별반/개인 3개월 과정모집(완전 이수됨)
-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
010-2901-8923

통 풍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통풍에 도움주는 식품 액상차로…
1달분 30만원
충남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1435 【약선 건강원】
010-9707-5512 인덕스님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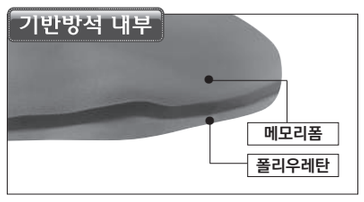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구입 문의 | 02-2004-8216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6호 | A14 | 전면광고

분에 넘치는 큰 이익을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4 수원빌딩 2층 은혜사
●총 평수 60평 ●최상의 위치. 북한산 입구
●전세 보증금 3억 / 시설비 1억 5천

연락처 010-5384-6063
신도회장 010-2763-2767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특징 : 전통사찰

◎ 위치 : 충남
◎ 부지 :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 5천만원 정
◎ 특징 : 산및사찰,시내교통 편리,여건좋음,창건주 승계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가액 : 6억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대지 : 360평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가액 : 4억

010-4583-4895

포교원안내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사찰안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지 : 355평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 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 19평
●공양간, 방1개, 7평 목조단청
●화장실(남,여), 목조단청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급)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서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20평
●건물 : 지하 1층 - 창고형 / 1층 - 공양간(큰방 2개, 대형주방, 화장실) 2층 - 방 3개. 화장실 /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옥상 : 소각장 설치. 다용도로 사용
●답사하실 분만 연락요망(사찰연력 40여년)
●가액 : 3억 3천 5백만원(인연있는 분 절충가능)

010-8360-8259

포교당안내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3층 건물 중 2층 전체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가액 : 보증금 1천 / 월 1백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포교원안내

●위치 : 부산 구포1동 신협과 농협 중간. 도시농업지원센터 앞
●건물 : 60평. 2층 단독 상가. 도심 속 청정기도 수행도량
●법당 :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소불 200불. 좌대법고
●방사 : 친견실. 객실. 편백황토방. 냉온방 시설
●시설 : 대형 주차시설 및 건물 내외 보안시설
●교통 : 지하철/버스 3분. 열차 5분. 공항 10분 거리
●가액 : 전세(보)2천 (월)30만 - 광열비 포함 (시)3청 8백 - 조정가능
●현 법회 중.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영상 확인 후 답사 010-4608-2568

(급)사찰안내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사찰도량 총 1,45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종각, 공양간, 차실, 요사채
●방이 총 9개. 창고. 외부 화장실. 대형주차장 등
●가액 : 총 2억 5천만원

010-4628-5699

포교당안내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평수 : 약 3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독채 전세. 위치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포교당안내

●위치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0-3 진양빌딩 2층 201호. 4층 건물
●시설 : 특A급(관음사)
●안산 중앙역 도보 5분 거리(롯데백화점 신관 맞은편)
●법당 : 석가. 관세음. 약사불(청동불). 소불관세음 100불(청동불)
●법당평수 : 약50평. 방2. 창고1. 주방1
●보증금 1천만원/월세 60만원
●권리금 : 1억원

010-4955-5026

포교당안내

●위치 : 창원시 진해구
●2층. 40평. 방2개. 공양간. 화장실 창고. 베란다. 시설완벽함
●보증금 500 / 월세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할 수 있음. 금액 조정가능

010-9395-6675

사찰안내

●위치 : 군산시 옥산면
●대지 : 420평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부속건물 : 삼성각. 관음전
●석가모니. 아미타불. 미륵석불
●녹차밭 300평
●가액 : 1억 8천

010-3906-3711

포교당겸 인생상담원

●위치 : 전북 전주
●사무실 1개. 방 2개. 살림가능 코너집. 위치좋음
●아미타 부처님. 고불상. 동불. 특수 단청. 목자대 부처님 포함. 3자 세치.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보증금 4백 / 월 20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010-3650-8481

포교원(급)안내

●위치: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64평(층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3000만원/월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7백만에 무조건 양도)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토굴안내

●위치 : 충남(대전, 세종 3-40분 거리)
●대지 : 약 200평
●법당 : 컨테이너 하우스 1동
●요사 : 약 20평. 방사2. 주방. 해우소
●개인선방 하실 분 적합
●가액 : 전월세 모두 답사 후 절충
●각종 집기 및 가전제품 구비 몸만 오셔도 가능함

010-3977-2123

일본포교당안내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스님,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545-5060
080-5358-5060
070-8836-5060

사찰터(급)매매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033번길 83
●국도에서 5분거리. 산 속 교통 편리(2차선 아스팔트)
●대지 : 전. 임야 포함 약 1600평
●요사채 1동. 창고 1동
●지리산 정상 능선이 한 눈에 다 보이는 아담한 곳
●가액 : 5억원(가격절충 가능)

010-5616-3177
010-2587-4377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진전면 오서리
●법당 : 38평 ●요사 : 65평
●대지 : 1천평 ●임야 : 4천평
●가액 : 12억(대출 2억 5천)

010-4547-4990

전국사찰안내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사찰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26번지
●삼성아파트 후문/우방아파트/남양아파트 옆 도로 접
●재개발 지역. 전 162평. 옛날 단독주택 건물 약 80평. 단층 상가식. 전포 3칸
●창고 겸 생활하며 사주 철학 영업할 수 있음
●가액 : 7억 5천

주인직 010-8666-6210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호선 5호선 5분
●3층 건물 중 2층. 40평
●법당 15평. 시설완비
●가액 : 보증금 1천 5백만원 / 월 7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3167-1774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신행요전

전 신행요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스님의『뜻으로 푼 반야심경』과『뜻으로 푼 수경』에 더하여『뜻으로 푼 금강경』을 함께 실어 불자들이 항상 수지 독송할 수 있게 하였다.

(재)한마음선원 | 130×193mm | 361쪽 | 8,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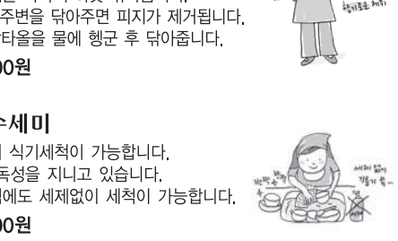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프간에 고대 불교국가 존재했나

메스 아이낙 유적서 불교 유물 잇달아 발굴

박영빈 객원기자

아프가니스탄 중부 메스 아이낙(Mes Aynak)의 유적지에서 7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패엽경 사본들이 발견됐다. 이번 발견으로 해당 유적지가 현장 삼장(602~664)이 방문했던 고대 불교국가 '브리스타나(Vrjisthana, 弗栗恃薩儻那國)' 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놀라운 발견을 7월 26일 '마이니치 신문' '싱저우 데일리' '메나 FN' 등의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동남쪽으로 약 40㎞에 위치한 메스 아이낙 유적지. 3~7세기경 번성했던 대규모 도시로 추정되는 이곳은 2009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됐다. 유적지에서는 소조불과 소조탑, 불화 파편 등 불교 유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소조불 가운데는 등신대 크기로 전신에 금이 입혀진 좌불상과 금으로 상호가 그려진 불두 등이 발견돼 당시의 번성한 불교문화와 도시의 세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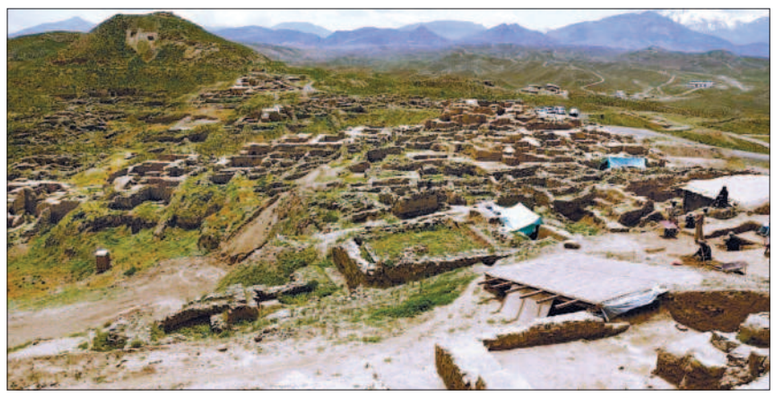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도시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언덕의 사면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잇달아 다량의 패엽경 사본들이 발견됐다. 발굴을 주관하는 아프간 고고학국은 "불탑도 아닌 유적에서 다량의 패엽경이 발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경전을 보관하는 도서관 등의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독을 담당한 교토 불교대학 마츠다 카즈노부 교수는 "최근 해독이 완료된 일부 사본들은 모두 싣담(siddham, 悉曇)체의 산스크리트어로 나무껍질에 쓰여 있다. 초기 대승불전인 〈반야경〉 〈미륵하생성불경〉 등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마츠다 교수는 초기 대승불전이 다량으로 발굴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첨언했다.

7세기 추정 패엽경 사본 비롯
소조불 · 소조탑 등 파편 나와
현장법사 거쳐간 브리스타나
해당 유적지일 가능성 높아져

또한 이번 사본들의 발견으로 메스 아이낙 유적지가 고대에 잊힌 불교국가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토유물보전과 복원에 협력하고 있는 도쿄예술대학의 마에다 코사쿠 교수는 "대량의 불교유물 발견과 위치적인 면에서 유적지가 현장 삼장의 〈대당서역기〉에 등장하는 '브리스타나' 와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마에다 교수는 "현장 삼장이 서역에서 대승불전을 가져와 번역했기에 이곳을 거쳐 인도를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 삼장은 〈대당서역기〉에서 고대의 불교국가 브리스타나에 대해 "불률시살당나국(弗栗恃薩儻那國)은 기후가 매우 춥고, 사람들의 성격은 과격하다. 그러나 삼보를 깊이 믿으며 학문을 숭상한다. 덕행이 있는 이를 공경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프간 중부의 메스 아이낙 유적지 전경, 사진출처=산케이신문

한편, 유적지 주변에는 세계 최대급의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동 광산이 산재해 있다. 오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진행중인 아프간 정부는 지난 2007년 30년간의 채굴권을 30억 달러(한화 약 3500억 원)에 중국 기업에 매각, 현재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간 고고학국은 광산채굴이 유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전체 유적의 10%만이 발굴됐다. 발굴을 완료할 때까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고학국의 제소를 받은 유네스코 또한 유적의 보전과 중요성을 아프간 정부에 권고했다. 아프간 정부의 유적보호와 개발의 균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日사찰 연꽃차 캔 음료로 시판

식물학 박사 타카하다 스님, '연려차' 개발해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불교계에 익숙한 일이다. 그러나 시판을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의 한 스님이 연꽃차를 캔 음료로 만들어 시판에 나서 화제다. 이 소식을 7월 26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액사이트 재팬'이 보도했다.

나라(奈良)현 고죠(五條)시에 소재한 쇼렌지(生蓮寺)는 9세기경에 세워진 고찰로 연꽃 명소다. 그러나 원래 사명이 무색하게 연꽃이 한 포기 없는 도량이었다. 주지인 다카하다 키미노리(高畑公紀, 42) 스님은 "연꽃이 피는 절인데 연꽃이 없어 늘 안타까웠다"며 연꽃을 재배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타카하다 스님은 "어릴 때부터 식물이 좋아서 항상 꽃이나 나무를 헤집고 다녔다"며, 식물에 대한 애정이 연꽃 조성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스님은 츠쿠바대학과 교토대학에서 식물학과 유전자 공학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스님이 직접 품종 개량한 연꽃도 있다.

사명에 맞는 도량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경내에 120종의 연꽃이 약 300개의 함지에서 자라고 있다. 작년에는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연꽃도감을 출판했다.

다카하다 스님은 연꽃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차를 생각했다. 연꽃차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개발됐지만, 캔 음료로 시판된 게 없다는 데 스님은 주목했다. 절의 연잎을 사용해 만든 차는 잎의 채집시기와 건조법 등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약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연꽃의 특유의 풋내를 없애고 깔끔한 풍미의 연꽃차가 탄생했다. 차의 이름은 연꽃의 아름다움을 마신다는 뜻의 '연려차(蓮麗茶)' 라고 지었다.


직접 개발한 연꽃차를 들어 보이는 다카하다 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완성된 레시피는 음료회사에 위탁해 캔음료로 완성, 현재는 사찰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스님은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자, 피안과 차안을 연결해 주는 꽃이다. 모두 이러한 점을 느끼며 음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억만장자 통 큰 기부… "달라이라마에 영감"

샌디에이고대 '연민' 연구에
한화 1187억 원 쾌척 '화제'
달라이라마 만나 중요성 느껴

미국의 억만장자 토마스 데니 샌포드(Thomas Denny Sanford · 83)가 불교적 공감과 연민에 대해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학에 1억 달러(한화 약 1187억 원)를 기부했다. 달라이라마의 철학 중 '행복의 원천으로서 연민의 가치' 에 영감을 받은 것이 그가 기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다.

은행권 재벌이자 자선가 데니 샌포드는 지난 2017년 달라이 라마를 처음 만났다. '국경 없는 관용' 주제 투어로 방미 중인 달라이 라마가 샌디에이고대학 졸업식 연사로 왔을 때 비공개로 만난 것이다.

데니 샌포드는 "달라이라마의 업적과 가르침에 영감을 받았다. 과학과 종교의 교차점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흥미는 깊고 심오했다"며 "나는 그를 통해 은혜, 인간성, 친절 등이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샌디에이고대학에서 '연민' 을 연구하는 기관에 1억 달러를 쾌척한 데니 샌포드.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데니 샌포드의 기금은 그의 이름을 따 샌디에이고대학 내 신설된 '데니 샌포드 공감과 연민 연구 기관(Denny Sanford Institute for Empathy and Compassion)' 의 연구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해당 기관의 연구원들은 연민의 신경학적 기능을 연구,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연민 증진 커리큘럼' 을 수립한다. 또 간병인 및 환자 복지 증진을 위한 방법도 연구한다.

그는 "이 선물(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은 인간의 시야를 넓힌다"며 "의사들은 연민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지만, 현대의학의 가혹한 현실 탓에 종종 길을 잃는다. 그러나 만약 의료계 종사자들이 '연민' 의 감정을 느끼고 증진시키는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세상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데니 샌포드는 앞서 2013년에도 신약 및 치료제 개발 연구 센터 설립을 위해 샌디에이고대학에 1억 달러를 기부했다. 샌디에이고 지역 유니언-트리뷴지(The San Diego Union-Tribune newspaper)는 이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2018년에도 아동 폭력 및 차별 근절을 위한 샌디에이고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기부했다. 현재까지 샌디에이고대학 및 동 대학 관련 기간에만 최소 4억59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50인' 에 이름을 올렸다.

데니 샌포드는 미국의 퍼스트 프리미어 뱅크(First Premier Bank) 창립자이자 지주회사 유나이티드 내셔널 기업(United National Corp)의 CEO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사망 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의회도서관, 간다라 불교 문헌 공개

2000년 된 희귀 불교 문헌… 보존 상태도 양호

미국 의회 도서관은 7월 29일(현지시간) 2000년 된 희귀 불교 문헌을 공개했다. 초기불교 역사 중에서도 형성기의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헌은 아프카니스탄 북부의 카불 지역과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간다라 양식의 문서다. 현재까지 간다라 필사본은 몇 백 권만이 전해오며, 불교 문학의 초기 발전 단계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단서로 꼽힌다. 공개된 문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출현과 미래의 부처 13명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본 텍스트 중 양 끝 부분을 제외한 약 80%가 보존됐다. 관계자는 "이 엄청난 문헌을 대중과 공유하고 싶었다"며 "많은 사학자들의 노력으로 매우 잘 보존됐다"고 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7월 29일 공개한 희귀 불교 문헌 일부. 이 문헌들은 약 20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CNN

하지만 훼손에 취약한 점이 문제다. "미 의회 도서관이 지금까지 다뤄온 유물 중 가장 복잡하고 훼손되기 쉬운 작품"이라는 전언이다. 연구가들은 수년째 해당 문헌의 보존 처리법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미 의회 도서관은 해당 문헌의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부정적 생각이 바뀌는 기적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⑮ 내면에서 자유로운 털어놓기



신과의 대화 글쓰기

'신과의 대화 글쓰기'라고 하니까 '흥! 신이 있기는 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 경우를 들어 헛다리짚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神)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신탁을 내려주는 신이나 교회 첨탑 아래, 사찰의 대웅전 안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다. 글쓰기명상에서 신이 계시는 처소를 굳이 말하자면 원고지나 노트북 모니터, 그 어느 지점인지 모를 곳이다. 아니, 그 안에서 부재중이어도 상관없다. 확인불가 조건에서도 우리는 신을 믿어왔거나 괜히 쌍심지를 켰거나 하소연을 했거나 이번 일만 잘 되면, 하고 긴급하게 읍소한 전력이 있다.

나는 신이 '어디에 있나'보다는 '신이 나와 어떻게 연관 있는가'에 관심이 크다.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도 신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질문 말이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신은 있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글쓰기명상을 하고 있으며 '신과의 대화 글쓰기'를 실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신은 어디 계실까. 〈신과의 대화 글쓰기〉는 그런 질문과 응답을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상했다.

어떤 신이건 간에, 당신에게 그 분은 탁월한 해결사다. 안갯속 같은 미래의 길을 열어주거나, 당신의 지혜로는 풀 길 없는 실타래를 풀어주거나, 당신이 감당키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분이다. 설사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조차도 '신의 뜻'이리라는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는 백마 탄 왕자였다. 수많은 청중 속에서도 당신의 신은 늘 유일한 단수다. 오늘 당신은 그 신을 만난다. '나'와 '신'이라는 단순 설정 안에서 담백하게 묻고 답하는 글쓰기. 이른바, 1대1 맞짱 뜨기 글쓰기다.

- 지금 당면한 문제를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적는다. 그에 따른 지금의 감정도 적으면서 당신의 신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다.

- 당신에 대해 신은 완벽한 수용자다. 화가 나는 상황이면 그 분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공격적, 냉소적, 비난조로 질문해보라.

- 질문을 반복해도 상관없다. 당신의 신 또한 같은 답변을 할 수도 있다.

- 질문의 관점을 바꿔서 묻기도 하라. 가령, 내가 주인공인 질문이 아니라 타인이 주인공인 질문도 해보라.

- 당신이 아닌 사물의 관점에서 물어보라. 사물과 신의 중재자로서 질문하고 답을 드러내보라.

이 작업을 통해 당신은 그런 과정의 조그만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신과의 대화 글쓰기'는 끈질긴 대화의 꽃이 피어나고, 그 꽃송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도에서 장만했다. 당신이 준비할 것은 딱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손끝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결심 한 장이면 충분하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적고, 신은 신의 말을 적어가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단순한 시나리오 대본이다. 하지만 당신은 '나와 신'이라는 설정 속에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묻지 못했던 유치한 질문이나, 어린아이의 응석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데 충실하면 그만이다. 장담하건대 당신의 신은 반드시 반응한다. 진지한 수용과 반문과 호기심의 눈빛이 당신의 손끝을 통해 전해질 것이다. 이를테면 이와 같다.

나 : 길동이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데, 어떻게 하죠?

신 : 피가 거꾸로 솟구칠만한 일이라도 있었어?

나 : 그거야 수도 없이 많죠. 내 뒷담화한다고 인찬이가 그랬단 말예요. 그게 한두 번이겠어요? 몇 년 전에는 정현보 뒷담화를 한 걸 현보가 알고 둘이 경찰서에 불려갈 만큼 싸웠단 말예요.

신 : 길동이가 뒷담화하는 걸 직접 보거나 들었어?

나 : 안 봐도 뻔하잖아요. 개는 전과가 있단 말예요.

신 : 넌 혹시 친구들하고 남의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

나 : 그거야… 가끔… 하지만, 길동이처럼 악의적으로 하지는 않죠.

신 : 호오, 악의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하긴 한단 말이네?

질문과 응답을 받아 적다보면 참 인간적인 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이면조차도 꿰뚫고 있구나 하는 감탄이 일기도 한다. 내가 묻고 내가 적는 것인데 그럴 리가? 이래서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한 생

부처 · 예수 같은 신 아니라
내 안에 묻는 하나의 대화
걸릴 것 전혀 없는 내면서
안 좋은 기억들 쏟아내보자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어쩌면 이런 체험이 왜, 몸을 고요히 정지시켜 자신의 몸 감각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찬찬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지 증명해준다. 삶이란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하여 이와 같은 공부를 통해 지혜를 확장해가는 것이리라.

홈 그라운드 글쓰기

21세기 초반 대한민국 전역이 들썩거렸던 사건을 기억하는가. 2002 월드컵 축구 4강 달성, 이를 두고 전문가의 이구동성이 있다. 월드컵 4강은 한국이 홈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 홈 게임은 통상 30% 정도 경기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 하지만 나는 이런 뒷이야기의 실효성을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홈 그라운드라는 게 어떻게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꽂혀 있다. 그런데 양자물리학에게 물어보니 '그럼, 당연하고 말고!'라고 한다.

현세에 이르러 대한민국 4강 신화 곱하기 200은 될 만한 대형 사건이 양자물리학이다. 양자물리학은 모든 물질에 지능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세기말 과학계를 뒤집어 놓았다. 모든 물질은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고, 그 미립자를 조종하는 주체는 '마음'임을 증명한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라고 하신 2500년 전, 붓다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다르지 않은 결과가 이제야 입증되다니! 월드컵 4강 신화는 그런 점에서 이 땅에 홈 그라운드의 이익과 양자물리학을 실제적 현상으로 드러낸 멋진 사건이다.

홈 그라운드 글쓰기는 마음의 에너지를 마음껏 즐기는 언어의 막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상대를 내 앞에 앉혀놓고 하고 싶은 대로 내질러대는 막춤 말이다. 그를 내 앞에 꿇어앉히든 두 손을 들게 하든 상관없다. 일단 마음으로 상대를 정했으면, 냅다 써갈기기. 7만 홈 팬들이 당신의 모음 한 획, 자음 한 획마다 미친 듯이 함성을 질러대는 그 속에서 나만의 욕망과 분노와 득의와 기세 빵빵한 언어들을 이끌고 유유히 적진을 돌파해가는 스타 플레이어가 돼보라는 제안이다. 글이란 이런 맛에 쓰는 것이다. 그것이 상대의 골망을 뒤흔드는 결승골이 되든 말든, 그런 결과에 연연할 일은 아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 모든 언어, 모든 기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당신은 당신만의 홈 그라운드 글쓰기를 즐길 수 있다.

- 마음의 독성이 차올랐을 때, 당신은 위험하다. 이때 독성 그래프를 치솟게 한 '그 사람'을 당신의 모니터에 소환하라. 상대를 명확히 규정하고, 삿대질하듯 쓴다.

- 마음의 대상을 내 앞에 앉혀놓고, '말하듯이, 악 쓰듯이, 울먹이듯이, 뒹굴면서 소리지르듯이' 마구 쓰는 글쓰기

-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당신을 돕고 있다는 전제하에 언어는 물론, 손짓, 발짓까지 동원하여 언어를 초월한 언어로 자유롭게 글쓰기

박미라는 이런 종류의 글쓰기를 자신의 저서 〈치유하는 글쓰기〉에서 '미친년 글쓰기'라고 명명한다. 치료 글쓰기로 유명한 페니베이커 박사는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저서에서 '감정표현 글쓰기'라고 했다. 어떤 표현으로 은유되어도 좋다. 당신이 만약, 자신만만한 패기와 결기의 눈빛으로 온 우주의 응원을 가슴에 품고 모니터 앞에 놓인 손가락 수다를 허용한다면, 준비 끝이다.

홈 그라운드 글쓰기 효력은 엄청나다. 하지만 차마, 정신치료 받으러 갈 필요도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정신과 문 앞에서 뒷덜미 잡아채 진료비 깨나 건진 실화가 몇 건 있긴 하다. 몇 년 전, 이마의 열이 열흘이나 내려가지 않아서 사직서를 품에 안고 술 사달라고 온 후배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층 간부였던 그 친구에게 언제부터인가 사장이 일거리를 주지 않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은 눈치도 못 챘다던가. 그는 20여 년 전부터 그 사장과 한솥밥 먹으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소위, 창업공신이었다. 그런 창업공신이 슬슬 걸림돌이 된 이유는 후배가 용돈 쥐가며 귀여워했던 사장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눈치 챘다. 드디어 내가 팽 당하는구나. 후배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생각은 그랬는데, 감정은 그러지 않았다. 그날부터 빗나간 해저 지구판처럼 위장이 비틀리고, 메스껍고, 우울하고, 슬프고, 아득했다.

후배가 말했다. 나 인생 폐품 됐어 형. 내가 말했다. 이왕 폐품된 거, 한바탕 구겨지는 소리라도 질러보지 그래. 그럴까? 그럼, 그런 사람은 너의 저주와 악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여생을 보내야하지 않겠어. 야아, 말만 들어도 통쾌하네. 그렇지? 통쾌하지? 내일 회사에 가거든, 어차피 일 감도 없을 텐데. 모니터에 계속 사장을 향한 저주와 악담과 환멸과 20여 년간 헌납한 청춘과 간혹 덜 채워진 급료와 사장 추모비, 사장 추도사, 사장 한테 인간적으로 남기고 싶은 말…. 이런 거, 실컷 써. 모니터에 두두두두 써 갈기고, '저장 안 함' 엔터 한 번 누른 후 또 쓰기 시작하라고. 가끔 사장실 한 번씩 노려보는 거, 잊지 말고.

성실한 후배는 그렇게 닷새를 계속 했다. 하루 종일 사장실을 바라보며 빈 모니터를 채우고 '저장 안함, 엔터 탁!'을 거듭했다. 그러는 동안, 후배가 경험한 기적이 있다. 첫날의 감정과 둘째 날 감정의 온도 차를 느꼈다. 셋째 날과 첫날의 온도 차는 너무나 커서, 사장의 고충이 후배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넷째 날은 사장이 가련해지고, 다섯째 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사장에게 '그동안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말하기로 작정하게 되었다.

그 20여 년 동안 사장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외롭고 괴로웠을까. 창업 초에 몇 년 고생하고, 그 공로만 헤아리면서 얼마나 많은 위세와 기세와 거드름을 피워왔던가. 온갖 아는 척으로 사장 입장을 난처하게 했던가. 이래서 개국공신을 팽하는구나. 그는 모니터를 은폐용 장애물 삼아 납작 엎드리고 싶었다. 다섯 째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 사장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 상무, 이거 모레까지 기안 좀 해주게나. 후배는 그로부터 그 직장에서 5년 더 일한 후 그해 봄날, 직원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았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모든 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옛날에, 하다못해 콩 한 알갱이 이렇게 따서…. 다 거둬 가고 줄기에 콩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붙어 있어요, 다 베어 가고 나머지가요. 고춧잎과 고추를 다 따 간 뒤에도 조그만 고추들이 붙어 있죠. 이슬 맞기 전에도 그렇고 이슬 맞고도 그렇고. 그거를 무심코 따서 입에 넣었다가 이 공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했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죠

'너, 누구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너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네 육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어떤 것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남의 것을 따서 내 육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고문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서 그러느냐?' 그런 문제 등등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야, 참!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이건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그러합디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해서 잘 먹고 잘 먹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너만이 스스로 우리 가정을 다 살릴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부지런히 옳게 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마음속에서 다 응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요상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천차만별로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 줄 아시죠? 하하하…. 마음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 통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용(用)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고 끌어다 쓰고 저렇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돌린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한다고 끌어다 쓰고, 밥을 지어 먹는다고 끌어다 쓰고 이러죠? 천차만별의 끌어다 쓰는 그 용은 지금 우리의 에너지 속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 양도 용도에 따라 정도에 맞춰서 나오고, 요런 그릇에다 밥을 지으면 그 그릇에 맞게 에너지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 낼 수가 있는 건데 왜 마음대로 마음을 낼 수가 없느냐는 얘깁니다. 참 요상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이 관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죠. 수억겁을 진화해 오면서 그 모든 사람이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살아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러면서 또 삽니다. 그러한 습관이 잔뜩 담겨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죽는다.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질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렇다면 진짜로 뛰는 사람을 믿어라 이겁니다. 발 없는 발로 뛰고, 손 없는 손으로 하고, 모든 거를 두뇌 아닌 누진으로써 안으로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 통신을 해서 모두 작용을 하는 그놈을 믿어라 이거죠. 나는 뛰어 봤자 한 걸음밖엔 못 뛰어! 그러나 '진짜 나'는 여기서 미국을 뛸래도 한 걸음이요, 태양계를 뛸래도 한 걸음이요, 은하계를 뛸래도 한 걸음이요, 어느 혹성을 뛸래도 한 걸음밖에 안 되니까, 체가 있는 우리 육신의 걸음 한 걸음과는 아주 천지 차이니까요.

마음! 고놈이 아니라면…. 고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고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고놈도 될 수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법신도 될 수 있고, 화신도 될 수 있고 약사도 될 수 있고, 물에 가서는 용신도 될 수 있고 들에 갈 때는 지신도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대로 내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로도 아래로도, 높게도 낮게도 보지 말고 그냥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로 생각해도 돼요. 세상에 고놈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딴 데서 갖다 줍니까, 뺏어 갑니까? 내가 하는 대로 입력이 되었다가 나오는데 남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병난 것은 마음속에서 해결해야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모르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계성'이라는 것도 대부분, 내 몸속의 악업 선업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든지 나를 좋게 해 주려고 그러든지 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끄달려서 돌아가지 말고 속지 마라.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써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다 잠재워라.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음으로써 대치를 해라. '모든 거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라.' 하고, 속지 말고 잘 다스리며 나가라." 이거죠.

속는다 하면…,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수좌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이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방울이 나오죠. 이걸 내가 몇 차례씩 얘기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방울이 나오는 거를 "요것도 문수란 놈, 요것도 문수 놈, 요것도 문수 놈!" 아, 이러고 주걱으로 들이쳤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알고 있지만, 다른 수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죠. 네 몸속이 즉 팥죽이다, 네 몸뚱이는 팥죽 솥이다 그러면 네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끓어서 나오는 것을, 한군데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각각인 줄 알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곧이듣고 자꾸 휘말리니까 "요것도 그놈, 요것도 그놈, 문수란 놈!" 하는 거죠. 이게 생각을 내는 거니까 문수거든. 법이거든요. 생각을 내기 이전은 부처지만 생각을 낼 때는 반드시 이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팥죽이 끓어오르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이렇게 쳤답니다.

그러니 한 몸 속에서 나오는 그 작용을 어떻게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다고 봅니까. 모두 하나 속에서 나오는 거를요. 그러니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거기다 그냥 되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됐던 거에다 입력을 다시 하는 게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속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가 놓을 때 해결되는 거죠. 또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는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단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거죠? 받으면 그대로 바닷물이지, 이 물 저 물 섞였다 해서 딴 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그러니 이름이 다른 데서 나오고 행동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차만별의 행동, 말,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전부 내 몸속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그냥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 놓고, 좋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하고 놓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자꾸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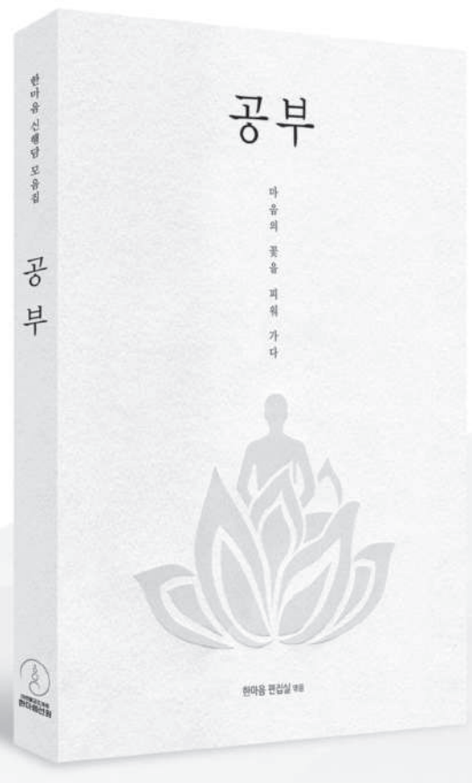
질문자1(남) 무더운 여름에 무상법문을 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시중에 모 스님의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을 대했을 때 '저승에 갈 때 가지고 가기는 뭘 가지고 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오는 도중에 들판에 매어져 있는 염소를 보는 순간 '아, 저게 바로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불현듯 '저승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승도 없는데 무슨 저승이 있어?' 하고 대답을 하고는 스스로 '아, 이게 공부가 돼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공부가 되어 가는 한 과정으로 보아야 되는지요?

큰스님 마음이라는 마음을 요상하게 생각을 해서 끌고 가지 마시구요, 아주 그렇게, 소탈하고 아주 깨끗하게요. 이승도 없는데 저승이 어딨습니까? 지옥도 없는데 천당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고 사는 데에 바로 지옥도 천당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가능치 않은 게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딴 데서 태어납니까? 이 자리에서 태어나시죠? 죽는 것도 이 자리에서 죽죠? 그러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데에 인과로써 업식만 짊어지고서 가고 오는 거죠.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악업 선업이 나오는 대로 끄달려서 돌아가지 말라

☞ A17면에서 계속

그래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부합이 돼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바로 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고(苦)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진 대로 이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천당도 지옥도 바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 내가 없는데 가져갈 것은 어딨으며 가져올 게 어딨습니까?

질문자1(남) 그동안 십우도의 소 찾는 과정을 느껴 보고 해 보는데요, '소를 탔는데 왜 소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 병통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를 타고서도 소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 병통은 어떤 병통인지요?

큰스님 소에서 내리면 송장이죠. 하하하…. 아니, 지금 생활들을 하실 때에 소 타고 피리 불고 안 다닙니까? 아니, 지금요, 소는 마음내기 이전을 뜻하고, 우리가 영혼의 근본이 없으면 지금 송장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해요. 그게 소니까요. 소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를 타고, 얼른 쉽게 말해서 주인공을 타고 생활들을 하고, 말들을 하고, 전달들을 하고 돌아가니 피리를 부는 거죠. 그것이 그냥 화엄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화엄경이 그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질문자1(남) 그런데 그것을 병통이라고 하는 까닭은….

큰스님 병통이 없으니까 병통이라고 그랬겠죠. 하하하…. 모두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과거도 지나갔으니까 묻지 마시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묻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현실에! 내가! 지금!' 말입니다.

질문자2(남) 당면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은 짙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일 저 일 궁리하는 것과 놓고 가는 도리는 생활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런데 과거라고 하지만 어저께도 과거고,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삼천 년 전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과 어저께와 한 시간 전이 같습니다. 이게 한 찰나입니다. 내가 항상 구정물을 바꿔 쓰라고 그러죠? 그냥 거기다 놓으란다고 그냥 맡겨 놓기만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고쳐서 끼워야 될 텐데 기계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끼우면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고쳐서 끼워야죠, 고장이 난 거는요. 그와 같이 그렇게 다가와서 내 앞에 닥칠 때는 과거든 뭐, 오래 걸렸든 업보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네 속에서 이렇게 모두 진행한 거니까, 네 속에서 모두 나오게 한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반드시 바꿔서 놓는 겁니다. 바꿔 끼우는 거죠. 바꿔 끼우고 믿어야 되죠. 고놈을 믿어야죠.

안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통신을 하고…. 이 인간에게도 대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인 마음속에서 모두 분자로 입자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음파라고 하죠.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무전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 이것을 판단을…, 판단이라기보다도 법으로 진행을 해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빽이 있는 놈한테 다 맡겨 놔요! 그렇게 바꿔서만 맡겨 놔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너 바꿔 가지고 오너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 가지고 오너라." 해야지, 이거를 주고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놔져만 있는 거지, 그게 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정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맑은 물로 대치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돌려놔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힌트를 주고 가르쳐서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하하하….

질문자2(남)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성품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참성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성품을 본 후에도 걸림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요.

큰스님 이게 여러분이 아리송해서 몰라서 그러시지,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거기서 생각나서 한 것은 후회를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자기 성품 속에서…, 그릇이 작은 데서 나왔든 큰 데서 나왔든, 잘못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잘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니까 그냥 그 마음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그만 그렇게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땐 '아이구,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럭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알아지는 게 있죠. '이건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앎이 생기죠.

그러니까 잘못 나왔든 잘 나왔든 그것이 우리 인생관에 의해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즉 말하자면 잘 배우게끔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잘 생각을 못해서 내가 이렇구나. 잘 생각을 할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마세요.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움이, 느낀 것이 참 많았다. 경험이 많았다. 그러니 이 경험을 준 것도 참 감사하구나.' 하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구덩이에 빠지게끔 하지를 않아요. 모를 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 심안으로 이렇게, 육안을 통해서 보게끔 만들거든요.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로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해라.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은, 그렇게 쓰는 성품이나 이렇게 쓰는 성품이나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마음 내기 이전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죠. 그런 거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둘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너로 인해서 경험을 얻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육안으로 보게끔 하지 말고 심안으로 보게, 네가 보고 네가 할 수 있게끔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 성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도 거기서 나오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마음공부 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경전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하며, 특히 『한마음요전』을 어떻게 참구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는 사십구 년을 설하셨고 그것을 경전으로 편집해서 냈어도 이날까지도 모두들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움죽거리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로서는 경전을 봐야 옳다, 경전을 안 봐야 옳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 자체는 다 똑같지만, 이 오장육부 속에도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행도 다르고 모두 다르듯이 이 세상만사의 모든 마음 내는 그릇은, 마음 내는 차원은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건 그릇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할 뿐이지 누가 봐야 옳다, 안 봐야 옳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전을 써 놨어도, 풀이를 해 놨어도 기복으로 풀이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복으로 써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혜를 넓혀 가고 마음을 계발하려면, 즉 지혜롭게 발전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목차 목차대로 있으니까 자기가 아쉬운 대로 한번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보고 듣지 않으면 이름을 몰라서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 먹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먹어 봤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길잡이로서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책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 자체에서 개선할 게 너무도 많은데 그 책을 만약에 잘 보고 습득해서 넘어간다면…. 그 책은 살아 있는 겁니다.

> 나는 없구나.
> 내가 없으니 어떠한 업보도 애고도
>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구나.

어떤 돌부처가 말입니다, 옮겨 놓으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나는 가기 싫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모셔 놨답니다. 그와 같이 돌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책에 말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다 한마음으로써 다 같이 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진리이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냥 글귀로 해 놨을 뿐이지 모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가 했다, 누가 안 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마음의 발전이 되면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죠.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날 때는 가차없이 갖다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응,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런데 뭘 그래?"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글을 외워서 배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외워 가지고 그 외운 거는 다 버리더라도 그 뜻을…, "내가 진짜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행을 중용으로 해라. 정신계와 물질계를 중용으로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 그걸 외워서 읽으라고 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읽다 보면 때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차 사고가 날 일이 생겨도 읽었던 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데, 이 우주 자체 허공에 말입니다, 생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떻게 부딪쳐서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나 혹성 자체도 다 대기권에서 통신으로 들일 건 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대치할 건 대치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게끔 돼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 그렇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득문득 스스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그 책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 박수)

나는 그러는 줄도 알아요. "그 사람은 뭐 만날 해 봤자 그 말, 그 말, 만날 그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 이러겠지만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말을 백 마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구지 스님은 평생을 그저 손가락 하나만 들었어요. 하하하…. 그거는 왜 그랬을까? 그 의문도 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리저리, 이럭저럭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찬 갖춰서…,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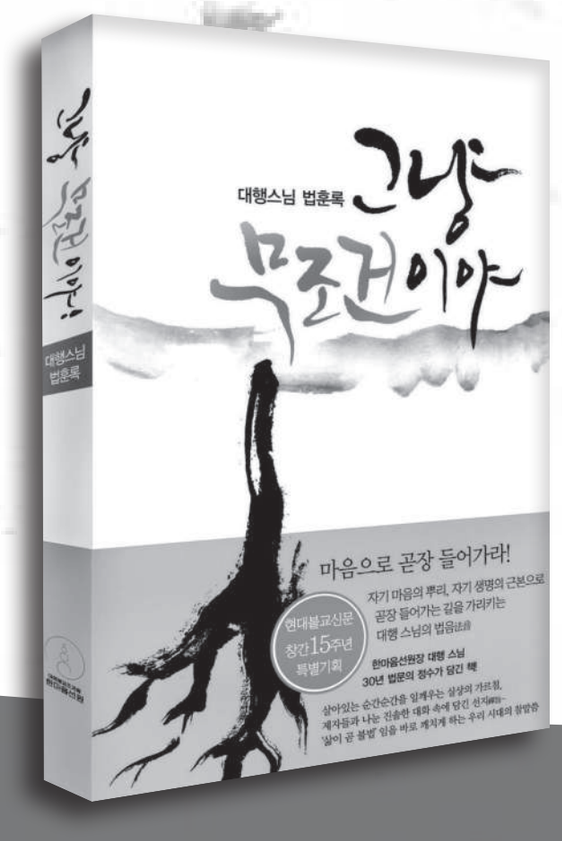
사회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고 끝내죠. 이거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시고)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고정되게 주어져 있지 않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아무개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다. 아무개 남편만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개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구나! 나는 없으니까 어떠한 업보가 걸릴 것도 없고, 어떤 애고가 생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구나.' 이런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다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만날 되풀이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하하하…. "아, 병 붙을 자리가 있어야 병을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로 병 붙을 자리가 없다는 걸, 자기가 없다는 걸 알고는 병이 그냥, 가는 중에 나았더래요. 하하하….

※위 법문은 1993년 7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명상과 함께 휴가를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휴가철
떠난다는 사실만으로 즐거워
건강한 휴가 위해 명상 필요

사고발생 높은 운전 · 물놀이
몸 상태 알아차리며 챙겨야
졸릴 땐 쉬고 흥분 자제하자

매순간 내 행동 점검하면서
휴가지들을 명상센터로 삼자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빌딩 숲속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요!'

유명한 노랫말처럼,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아우성을 벗어나 쉼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여름 휴가철이 왔다. 휴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바캉스(Vacance)'와 영어의 '베케이션(Va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바카티오(Vacatio)'인데 '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시 휴가는 푹 쉬면서 비우고 또 비우는 것이다.

휴가는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신이 나고 즐거워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심신의학(Psychosomatic Medicine)' 학술지에 실린 네덜란드 연구팀의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 휴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가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크게 줄어들게 한다. 더불어 휴가기간 동안 명상을 하면 '인터페론I' 등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중요한 면역물질의 활성을 늘리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다고 한다. 결국 쉰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은 건강해지고 여기에 보태어 휴식과 명상이 동반되면 면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쉼을 위해, 휴가 중에 동반하면 좋은 명상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운전 명상'이다. 휴가지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자동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8월 휴가기간 교통사고는 총 97만132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6.7%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3606명의 사망자와 11만56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집중력 저하를 꼽고 있다. 명상적 운전은 매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이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고 피곤하면 멈추고 졸리면 그저 쉴 뿐.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면서 차를 움직이면 그곳이 바로 움직이는 행선 드라이빙 센터이다.

둘째는 '물놀이 명상'이다.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사고 사망자 165명 중에 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75%인 123명이 사망하였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파제나 갯바위와 같이 미끄럽고 추락하기 쉬운 곳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출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휴대전화나 호루라기를 소지하여 사고 발생 시 위치를 알릴 수 있어야 있다. 명상적 물놀이는 매순간 물속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가 점검하는 것이다. 몸이 물살과 닿아 있으면 닿은 줄 알고 힘에 부치면 알아차리고 '그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좋음을 넘어 흥분했을 때 스스로 멈추게 되면 그곳이 바로 물과 함께하는 물명상 센터이다.

셋째는 '산행 명상'이다. 여름휴가철에는 시원한 계곡, 자연을 느끼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산을 찾는다. 여름 산행은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로 신체의 피로가 빨리 누적되고 근육의 무리가 가면서 사고 발생 빈도가 그만큼 높다. 명상적 산행은 걸을 때 호흡을 챙기는 것이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걸음을 늦추고 호흡이 순해지면 그 리듬에 맞춰 '나무 마하'를 외치며 걷는 것이다. "'나'란 묶음이 해체되면 그 자체로 온 우주"라는 무한한 마음을 발걸음에 실어 옮기다 보면 언뜻 언뜻 무경계의 청량함이 반긴다. 그 느낌을 누리는 그 곳이 바로 산행과 함께하는 산 명상센터이다.

명상 동반형 휴가는 모든 곳을 명상터로 만들고, 그대로 쉬고 또 쉬게 하여 새로운 활력을 덤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귀가 후 찾아오는 휴가후유증의 출현 없이 모든 삶의 순간을 빛나게 한다.



마음산책

돌고 도는 마음보시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봉사활동을 하는 김씨의 모임은 10년이 넘었다. 얼마 전, 김씨는 모임에 일찍 가서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도반이 "노보살님 아들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 이름으로 간식 보시금을 올리신 모양이에요" 한다. 70대인 노보살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넉넉지 않게 사시면서도 항상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었다. 김씨는 문득, 아들 이름으로 간식 보시금을 올렸다니 '안 그래도 형편이 힘드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 본인 무릎도 불편한데 봉사를 다니시는 노보살님을 생각하면, 참 저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싶을 때가 많았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이 연회비를 내는 날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봉사를 위한 보시금 외에, 모임 유지를 위해서 1년마다 회비를 걷고 있다.

연회비 10만원이 노보살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일 것이다. 김씨는 대신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그런데 보살님의 강직한 성품에 회비를 누가 대신 내는 것을 좋아할 리 만무했다. 김씨는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총무와 작전을 짰다. 노보살님이 도착하자 총무는 "보살님, 오늘 절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우리 봉사모임의 어르신께 공양금을 드리고 싶대요. 절대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고, 부모님 생각이 나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좋은 일이라니까 축하로 받아주셔야 돼요"라고 했다.

노보살님은 웃으며 "좋은 일이라니, 부담 없이 받아도 되겠네요. 그럼 그걸 회비로 낼게요" 라고 한다. 김씨는 마음이 무척이나 뿌듯하고 좋았다. 그런데 사실 김씨도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다. 매일 가계부를 쓰며 절약하는 김씨는 귀갓길에 '이번 달 씀씀이를 10만원 줄여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돌아왔다. 돈 들어가는 게 뻔한데 어디서 줄일까 고민하면서.

집에 도착하니 대학생 딸이 환하게 웃는다. "엄마, 대박이에요! 오늘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이 글쎄, 보너스를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엄청 좋은 일이 있다나. 그래서 축하로 쏘시는 거래요. 그냥 생겼으니 엄마 드릴게요." 딸이 신나서 파란 봉투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10만원이 들어있었다.

돈이 제일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남의 어려움을 한번 헤아려 보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김씨는 자신도 넉넉지 않지만 노보살님을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내었다. 그 마음이 어디론가 통해서 뜻밖에도 다시 딸을 통해 돌아왔다. 돈이 아니라 남을 생각한 그 마음이 돌아온 것이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절에 다니기 전에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돕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인과법을 알고 보니, 마음을 잘 쓰며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보니, 자기도 아껴 쓰면서 남을 돕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씨는 봉사를 다닌 후부터, 무엇보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이 좋아진 것이 감사하다고 한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식교육이 잘 되어 행복하다고 한다. 어느 스님께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라고 하신 법문이 떠오른다.

社 說

'신미 협력'이 왜 불편한가

– 영화 〈나랏말싸미〉를 위한 辯 –

영화 〈나랏말싸미〉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훈민정음 창제 주역으로 세종대왕이 아닌 신미 스님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영화 내용을 반박했다. 세종은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를 알렸다. 하지만 신미 스님의 기록은 1446년에 가서야 처음 등장한다. 문종 역시도 선왕 세종이 1446년에 신미의 이름을 알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정사(正史) 기록인 실록을 살펴보면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완벽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신미 스님을 필두로 한 창제 협력설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가설이다.

실제 조선시대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세종께서 언문청을 설치해 언문을 만들었고, 이는 '범자(梵字)'를 본받았다"고 밝힌다. 음소문자의 원리와 계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김만중 역시 〈서포만필〉에서 "범어는 초 · 중 · 종성으로 합해 글자를 이루니 생성이 무궁하다. 우리나라도 이로 말미암아 언문을 만들었다"고 기술했다.

현대에서도 협력설은 '범어기원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대표적인 학자가 정광 고려대 국문과 명예교수다. 그는 한글 창제를 세종 단독이 아닌 세종의 형제 · 자녀들과 불가의 학승이 이뤄낸 '위대한 발명'으로 본다. 최근 저서에는 "신미가 반절하자(反切下字)의 운을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고 모음에 해당하는 중성 글자 11자를 따로 제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던 신미 스님을 전면으로 소환한 것은 불교계의 노력이었다. 정찬주 작가는 소설 〈천강에 비친 달〉로 신미 스님을 그려냈고, 박해진 작가는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 평전〉을 통해 스님의 면면을 역사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몇몇 스님들이 자문 역할로 참여한 영화 〈나랏말싸미〉도 마찬가지다. 앞선 역사적 사실들에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이었다. 범어기원설과 협력설에 기반한 역사영화임에도 유독 〈나랏말싸미〉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혹독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훈민정음 세종 친제' 신화라는 불가침의 영역을 영화 〈나랏말싸미〉가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역사도 종교도 신화는 위험하다. 새로운 이론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친제 · 협력설 논쟁은 꾸준해
협력설 기반한 픽션 영화에
다큐적 잣대 잔혹하지 않나

실제 한 문화평론가는 칼럼에서 "신미를 통해 한글이 조선의 순수 창작품이 아닌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문화 전통의 산물인 것처럼 인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15세기부터 내려온 범어기원설이나 전문 학자들의 여러 학설을 한 번에 부정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제기되는 역사왜곡 논란의 문제점은 단순 창제설의 이견을 넘어 훈민정음 관련 불교 역할을 부정하는 데에 있다. 다양한 학설을 통한 다각적 조명이 아닌 전체주의적 접근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불교계 역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스로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한다는 교훈을 가졌으면 한다. 감정적 대응보다 신미 스님의 역할론과 훈민정음 창제에서 불교의 영향을 체계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노력을 범불교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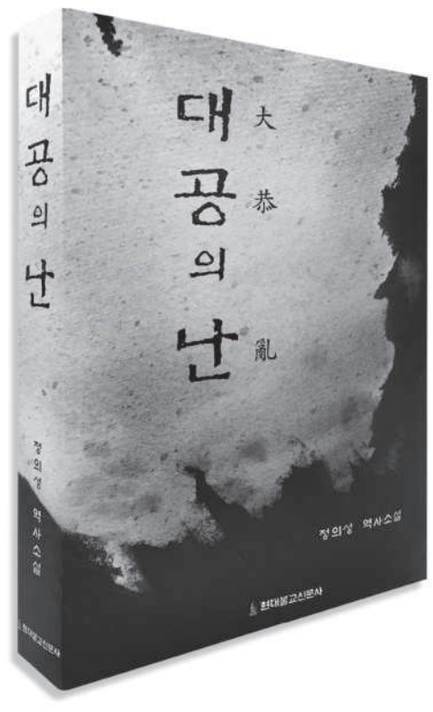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불기 2563년

칠석 백중

땅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히라는 뜻으로

초불을 켜는 날이 칠석이고 백중입니다.

모습이 없으면 부닥침이 없고, 상대가 없으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생전에 이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흙을 고르고, 물을 촉촉하게 주어서 밭을 갈아 놓는다면

자기 씨에서 싹이 났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싹으로 그냥 있는 줄 알고 허공중에 헤매는

그러한 영혼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은연중에 자기 마음의 뿌리를 알게 될 것이며

자손 또한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 대행선사 법어 –

2019년 (칠석) 8.7 (백중) 8.1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승보공양제일, 해인사 수닷타들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는 매월 첫주 토요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후원회는 승보공양을 위해 각지에서 모인 재가자들의 모임으로 공부하는 해인사 스님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道伴의 향기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

승보공양, 후원회 인연

2015년 최현철 회장 입회
SNS 밴드 이용 홍보 가입
현재 회원수 700여 명
매월 첫 주말 정기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처님 당시, 부호 수닷타(급고독장자 · 給孤獨長者)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곧바로 불법(佛法)에 귀의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부처님을 위한 불사에 미련 없이 회향한다. 그는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한다. 사업가였던 수닷타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미련 없이 부처님을 위해 쓸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공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따른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현신을 볼 수 없는 오늘에서 우리가 수닷타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마도 승보를 공양하는 일일 것이다. 수닷타의 마음으로 승보공양의 공덕을 쌓고 있는 인연들이 있다.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이하 후원회)'이다. 후원회는 승보공양을 위해 각지에서 모인 재가자들의 모임으로 공부하는 해인사 스님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회원들 각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해인사의 수닷타'들을 만났다.

후원회의 시작

후원회는 해인사 강원 57기 스님들로부터 비롯됐다. 스님들을 돕는 후원회가 스님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지금의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현철(58) 회장과 배명숙(58) 홍보팀장은 2015년 초 도반들과 해인사를 찾았다가 스님들(57기)이 직접 후원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현철 회장과 배명숙 홍보팀장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본인들의 후원을 본인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나 급한 상황이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일을 모색하게 되었을까. 강원 스님들의 열악한 면학환경에 대해 알게 된 최 회장과 배 팀장은 망설일 것도 생각할 것도 없었다. 부부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반들과 후원회에 가입하고, 후원회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최 회장과 배 팀장은 도반들과 6월 어느 날, 여름템플스테이를 위해 해인사를 찾았다가 법회에 참석한다. 당시 법회에는 5명의 강원 후원회 회원이 참석하고 있었다.

"저희가 참석하니 11명이 됐어요. 정식 법회를 시작한 건 그 해 4월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취소 됐다가 저희가 나타난 거죠"

최 회장은 그 때 스님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됐다.

"당시 스님들의 용체가 10만원도 안 됐어요. 휴대폰 요금을 내고 나면 책 한 권 사 읽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죠. 병원 치료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학인 스님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재가자로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부터 최 회장과 배 팀장, 그리고 도반들은 다른 도반들에게 강원 스님들의 상황과 후원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후원회 가입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인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후원회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현재 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58 · 김해) 씨도 해인사 법회에 참석했다가 후원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처음 강원 스님들에 대해 들었을 때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한 번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불교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 회장과 배 팀장은 1년 정도 지나 임원진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무진을 구성해 추진력 있는 홍보 방안을 찾았다.

우선 우편 홍보물을 없애고 SNS 밴드를 이용해 손 쉬운 접근법을 활용했다. 매월 첫 주에는 정기법회를 열어 일반 불자들이 편하게 해인사를 찾도록 유도했다.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 밴드에는 743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후원회는 후원 계좌를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한다. 하나는 회원들이 고정적으로 학사 과정을 위한 지원금 계좌이고, 또 하나는 노트북 기부 등 특별활동을 위한 보시금 계좌다. 지난 6월까지 약 1억 원의 후원금이 적립됐다.

"매월 재정을 정리하며 보시하는 분들의 명단을 보고 또 봅니다. 그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그 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 후원금을 위해 밴드에 글을 올릴 때 마다 제 신행도 굳건해집니다. 급히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반신반의하며 글을 올리는데 놀랍게도 후원금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해인사 수닷타들을 만나다

홍류동 계곡을 지나 팔만대장경을 모신 해인사로 오른다. 구광루에서 법회가 시작됐다. 80여 명의 대중이 회색 바탕에 갈색 띠를 두른 조끼를 입고 앉아 있다. 조끼에는 해인도(海印圖)가 가슴 중앙 부분에 찍혀있다. 해인도는 바다에 삼라만상이 도장을 찍은 듯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계도(法界圖)라고도 불린다. 법계도는 〈화엄경〉의 법성게를 담고 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오셋타이 공덕과 행복

B5
문화
천태종, '법화광명의 노래' 음악회

B6
학술
이진구의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스님들 공부 잘 돼야 바른 법 돌아와”



후원회는 매월 첫주 토요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2018년 8월 후원회는 강원에 노트북을 전달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

B1면에서 계속

해인사 강원 후원회 활동

“강원 스님들 환경 열악해, 재가자로서 마음 무거워”

후원금 1억원 적립

학사과정, 노트북 등 지원

전국 각지에서 회원 가입

〈금강경〉 사경집 제작 보급

법성게는 〈화엄경〉의 내용을 7언 30구 210자로 담은 게송으로 화엄의 세상을 압축한 것이다. 해인사 구광루에서 학인 스님들의 가사와 닮은 조끼를 입은 그들은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모인 화엄행자처럼 보인다. 그들의 발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승보(僧寶)를 호위하는 호법신장이 되겠다는 원력이다.

“뛰어난 법문을 들을 때 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더 많이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말과 행동의 낙처(落處)를 알라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삶을 이끄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삶을 지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자다워지고 향기로운 삶이 됩니다. 가르침을 얻고 법의 가치를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후원회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너무나 부족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법회 대중 중에서 후원회 대중을 만났다. 이순복(63) 불자는 법문을 통해 얻은 삶의 지침이 후원회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됐다고 했다. 오직 부처님의 법을 사랑해서 지키고 모든 이들이 함께 듣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만들어진 모습이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보니 너무나 좋은데 재가불자인 제가 법을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 법이 이 땅에 계속해서 있으려면 스님들의 공부가 중요한데 학인 스님들의 열악한 환경을 듣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스님들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법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배 팀장이 말했다. 후원회를 설립하고 이끌어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이다. 오직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이 이 땅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에서 비롯됐다.

진리의 법음을 울려주시기를

새벽 4시, 가야산에 법고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후원회 도반들이 법고 앞으로 모여들었다. 장엄하게 퍼져가는 법고소리를 들으며 대중은 마음을 다시 단단히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그 옛날의 수닷타를 떠올리고 있었다.

“강원 스님들을 후원하는 불사는 결국 저희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옛날 수닷타처럼 부처님의 법을 받들고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제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대신해 바른 법을 많은 중생들에게 전달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모두가 모인 것입니다.”

배 팀장은 우리 불교의 미래를 위한,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교육’ 이라고 했다. 후원회는 불법을 전하기 위해 매월 정기 법회도 쉼 없이 열고 있다. 법회를 통해 법을 들어야 마음을 내고 공덕을 쌓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법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다. 7월 정기 법회에는 처음 참여한 사람만 21명이며 기존 회원까지 포함하면 80여 명이 동참했다. 해인사 바로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부터 대구,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사연도 제각각이다. 여자 친구의 부모님을 따라 부처님께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있다.

정휘철(30) 씨와 신예지(25) 씨는 “부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찾아왔는데 조용한 사찰에서 힐링도 하게 되고 법문도 들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온 한 불자는 “오늘 처음 도반을 따라 왔는데 멈추지 말고 이렇게 법석을 정기적으로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들은 해인사에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며 부처님의 법을 듣고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정기법회는 특강과 참선, 예불, 108배, 암자 순례, 마애불 산행, 차담 등으로 진행된다.

후원회는 얼마 전부터 〈금강경〉 사경집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학인 스님뿐 아니라 모두가 부처님의 법을 읽고 공부해 더욱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최 회장에게 앞으로 계획을 물었다. 최 회장은 “후원회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의미를 궁금해 하는 기자에게 최 회장은 “학인 스님들을 위한 후원회가 필요 없을 만큼 든든한 교육 불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법보시가 최고라고 합니다. 왜 법보시가 최고일까요? 온 우주가 마음에서 나고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법을 통해 마음을 바로 압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일러줍니다. 법을 듣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법고 소리가 그치자 해인사를 둘러싸고 있는 가야산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햇빛은 산자락부터 천천히 내려오더니 홍류동 계곡 구석까지 어두운 곳을 찾아 빠짐없이 햇살을 쏟아냈다. 법고를 두드리던 학인 스님들이 범종루에서 차례로 내려왔다. 후원회 회원들은 스님을 바라보며 합장 기원했다.

“힘차게 팔을 휘둘러 두드리던 법고의 울림으로 새벽 여명을 불러왔듯 무명의 세계에 진리의 법음을 내려주시기를”

그 옛날 수닷타는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공양한 후에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공양했으며, 재물을 다 소진한 후에는 죽을 끓여 보시하는 등 승보공양을 이어갔다. 또 며느리로 들어온 수자타가 교만하여 남편과 시부모를 여법하게 섬기지 않고 아내로서의 예절과 덕을 갖추지 못하자 부처님께 법을 청해 가르쳤다. 그 가르침은 부처님이 어진 아내로서의 길을 설한 대표적인 설법으로 남았다. 결국 승보를 공양하는 일은 공양하는 자신의 공덕으로 돌아온다. 법회를 마친 후원회 회원들은 “이제 막 출가하여 부처님 공부에 뜻을 낸 스님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님들을 후원하는 후원회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며 불자들에게 서원과 권선을 부탁했다.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현철 회장과 배명숙 홍보팀장 부부.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후원회는?

해인사 강원 57기 스님들이 2015년 시작했다. 이후 재가자들의 발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갔고 현재 밴드 정기회원만 743명이다. 정기 후원을 통해 학인 스님들의 학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 후원금으로 노트북 지원, 성지순례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후원해 재가자 승보공양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학인 스님들의 후원 외에도 정기법회를 열어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금강경〉 사경집을 제작 배포해 법공양에도 앞장서고 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숲침대



숲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숲침대
◆ 숲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숲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숲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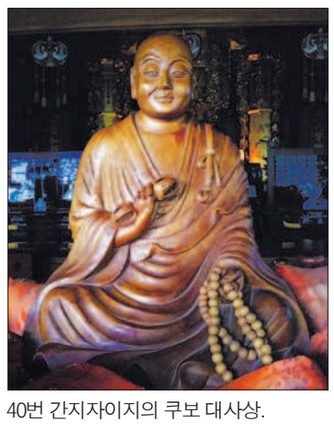
온정어린 보시… 여긴 '소확행' 순례길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㉖ 오셋타이 공덕과 행복

40번 간지자이지서 맞는 아침
"힘내 걷겠다" 기도하며 다짐
운동부 학생들 산사 기원 눈길
귤 · 목욕비 오셋타이 온정 '훈훈'
소소한 행복 느끼는 힐링 순례


40번 간지자이지의 전경. 아침 운동 후 승전 기원을 위해 지역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사찰을 찾는 모습은 매우 신선했다.


40번 간지자이지의 쿠보 대사상.


오셋타이로 받은 자몽. 가지 하나를 잘라주셨다.

40번 간지자이지(觀自在寺)에서 아침을 맞이한다. 사찰 한 켠에 있는 츠야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40번 사찰은 순례자들을 위해 츠야도(通夜堂)과 슈쿠보(宿坊)을 모두 운영한다. 절에서 운영하는 숙소인 슈쿠보에서 묵을 경우 보통 아침예불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이곳 간지자이지는 자율참석이다. 다음 사찰까지 50km가 넘다보니 새벽 일찍 출발하려는 순례자들을 배려해서다.

반면 츠야도의 경우 그러한 종교적인 규율에서 자유롭다. 본래 츠야도라는 것은 절에서 철야로 정진하는 이들이 잠깐 눈을 붙이거나, 쉬기 위한 작은 방이기 때문이다. 시설이 좋은 곳은 간단한 샤워시설이 있거나 이부자리가 마련된 츠야도도 있지만, 노숙순례자들에겐 지붕과 벽이 있는 안전한 잠자리란 사실에 감지덕지하다.

6시에 일어났지만 주위는 꽤나 밝아있다. 화장실로 가면서 슈쿠보 쪽을 보니 벌써 몇몇 순례자들이 길을 나섰는지, 현관이 열려있다. 오늘의 목표는 3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순례자 휴게소. 노숙을 할 수 있는데다, 하루를 마칠 즈음 도착할 만한 거리다.

괜히 본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본다, 새벽에 출발한 순례자가 공양 올렸는지 향 몇 가닥이 향로에서 타고 있다. 간지자이지의 본존은 아미타부처님과 약사여래, 십일면관세음의 삼존불. 사찰의 연기 설화에선 한 그루의 나무에서 3구의 불상을 코보 대사가 손수 조성했다고 한다. 안에서는 예불을 준비하는지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잠깐 손을 모아서 부처님께 인사를 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감사히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걷겠습니다."

츠야도로 돌아와 보니 모두들 짐을 부산히 싸고 있다. 언제까지 같이 길동무를 할진 모르겠지만 홋카이도 콤비와 계속 함께 걷게 된다. 그래도 맘이 잘 맞는 길동무들과 함께 이어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뒤에 묵을 순례자를 위해 츠야도 청소까지 마치고서, 오전 7시를 조금 넘겨 길을 나선다.

산문을 나서려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조깅을 하면서 사찰로 달려온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 순간 우뚝 서있는데 인솔자로 보이는 교사 한 분이 인사를 한다. 그것을 신호로 학생들이 밀물이 들이 닥치듯, 인사를 하며 본당을 향해 달려간다. 어안이 벙벙하여 있으려니 코에이 씨가 설명한다.

"박상, 이런 광경은 처음 보죠? 아마도 지역 학교 체육부일겁니다. 보통 아침 트레이닝하면서 사찰이나 신사를 들려서 대회 우승을 기원하곤 하거든요. 일본에선 꽤 흔한 광경입니다."

산문을 빠져나와 순례길로 막 들어서려는 찰나, 등 뒤로 또다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 돌아보니 참배를 마치고 다시금 달려가는 학생들이 보였다. 아침부터 다들 활기찬 모습에 새삼 감탄이 나왔다.

40번 간지자이지에서 이어지는 순례길은 국도를 타고 걸어가다가, 옛날 길을 따라 고개를 넘느냐, 그대로 국도를 타고 나아가느냐로 나뉜다. 결국에는 다시 국도로 통하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걷기 편한 국도를 따라 걷곤 한다. 필자도 이틀간 노숙과 츠야도로 밤을 지샌지라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져 국도를 따라 걷기로 하고 천천히 나아갔다.

간지자이지에서 이어지는 순례길은 완만한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이다. 길 옆으로 스치듯 보이는 바다가 제법 멋있다. 실제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길이자만 지친 몸에는 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죽하면 이날 일기에 "바다가 예뻐 봤자, 바다지"라고 심드렁한 감상을 써두었을 정도다. 홋카이도 콤비도 꽤나 지쳤는지, 여느 때와 같이 신나는 입담은 나오지도 않고 무겁게 지팡이를 끄는 소리만 순례길에 울렸다.

그렇게 2시간가량 꼼짝없이 걷다가 옛날 순례길의 분기점에 들어선다. 오늘은 모두가 국도를 따라 걷기로 결정했기에 잠시 길게 쉬어가기로 한다. 번듯한 가건물로 되어있는 버스정류장에 들어가 땀을 들이고 가려니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을 건다.

어디서 왔느냐, 1번부터 걸었느냐, 오늘로 며칠째냐. 순례길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에 답을 하고 있으니 할아버지 한 분이 물어본다.

"순례자 양반들, 혹시 귤 먹을런가? 내가 오셋타이 함세."

다들 뭔가 새콤하니 힘이 나는 걸 먹고 싶었기에 감사히 받겠다고 답례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간 할아버지는 정류장 옆에 있던 트럭을 타고선 휑하니 가버린다. 순간 놀라서 멍하니 있으려니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저 할아버지는 버스를 기다리던 게 아니라, 귤밭에 일을 보러 가다 잠깐 놀고 있던 사람이라며 웃어보였다.

"아마, 자기네 귤밭에 귤 따러 갔나보우."

5분 뒤, 다시 돌아온 할아버지는 주렁주렁 귤이 달린 가지를 불쑥 내밀었다. 이 지역의 특산물인 본탄(文旦)귤이다. 처음에는 여름 귤의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코쿠의 기후에 맞게 개량된 자몽이었다.

가지에서 귤을 골라내보니 어른 주먹만 한 것이 11개나 나왔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있지만 오셋타이로 받은 것이니 물릴 수는 없다. 그 자리에서 2개를 까서 다 같이 나눠 먹곤, 서너 개씩 배낭에 챙겨 넣는다. 작은 버스정류장 안에 상큼한 귤향기가 번진다. 두꺼운 껍질을 어찌하나 했더니 할아버지가 밭에 뿌리면 된다며 그냥 두라고 한다. 그러면서 껍질에 만져지는 기름을 몸에 바르면 모기가 달려들지 않는다며 목덜미와 팔에 슥슥 문질러 주신다.

시은(施恩)에 묵직해진 배낭을 다시 짊어지고 앞으로 걸어 나간다. 다들 정신이 조금 돌아 왔는지 다시금 왁자지껄 이야기를 시작한다. 당연히 화제는 오셋타이다.

"난 처음에 귤을 주신다기에 한 서너 알 주실 줄 알았지!"

"본격적으로 가지를 끊어 오실 줄이야. 이 동네 귤이 많이 나긴 하지만요."

"그래도 며칠 과일 걱정은 없겠습니다. 박상은 이렇게 특이한 오셋타이 또 받아본 적 있어?"

"그러네요, 예전에 도쿠시마 어딘가에서 양배추를 한 통 받은 적 있어요."

"양배추? 그냥 생양배추 말이야?"

"네, 더위에 먹으면 좋다면서 밭에서 그대로 캐서 주시더군요. 한 3일 양배추 잔치였죠."

"우린 죽순을 받은 적 있었는데 참 난감했지. 조리도구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하나는 어찌어찌 먹었는데 남은 건 자연으로 방생했지."

돌아온 입담에 다시 힘내서 걸어 나간다. 한 시간 정도 걸어가자 캠핑장과 공원이 모인 지역에 들어섰다. 캠핑장엔 가족단위로 꽤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부러움을 느끼고 있던 찰나 코에이 씨가 제안을 하나 한다. 지도를 보니 얼마 안가 온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몸을 담구고 가는 건 어떠냐는 것이다. 마침 제대로 몸을 씻은 지도 좀 됐고, 온천이라니 냉큼 제안을 받아들인다.

온천에 도착하니 개장시간이 30분정도 남았다. 바닷가 근처라서인지 해수온천이라고 적혀있다. 문 앞에서 어슬렁대고 있으려니 직원이 문을 열며 오늘은 첫 손님에 순례자가 세 사람이나 있으니 재수가 좋겠다며 너스레를 떤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니 입에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난다. 몸에 긴장이 풀려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고, 간단한 빨래거리를 손으로 대충 빤다. 여유롭게 있고픈 마음이 굴뚝같지만 해가 지기 전엔 오늘의 잠자리에 도착해야하니 서둘러 씻고 나간다.

온천 입구에 있는 늘어서있는 특산품 점에서 시식용으로 놓인 과자를 몇 개 집어 먹곤 다시 길을 나서려는데, 온천을 마치고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불러 세운다.

"순례자 분들 목욕비를 보시하고 싶었는데, 잠깐 차에 다녀오는 사이에 다들 들어가셨더군요."

그러시면 한 사람당 1천 엔씩 오셋타이라며 손에 쥐어주신다. 아침엔 시은으로 배낭이 무거워지더니, 이젠 지갑까지 무거워 진다. 손빨래한 양말과 속옷들이 주렁주렁 배낭에 걸어놓고는 길을 나선다. 몸을 산뜻하게 씻어서인지 더운 바람이 선선한 산들바람으로 느껴진다.

아무리 힘들고 심심한 순례길이라도, 이런 소소한 행복이 다시금 두 다리에 힘을 불어 넣는다. 선의로 가득한 오셋타이, 함께 도반이 되어 길을 걷는 순례자들,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다. 이 순례길이야 말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길임을 다시금 느낀다.

〈자유기고가〉



한글 만든 세종의 고뇌 시나리오에 담다



나랏말싸미 · 맹가노니
이송원 지음/문예출판사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영화 〈사도〉와 〈나랏말싸미〉의 각본가 이송원은 자신이 쓴 시나리오에 해설을 다는 새로운 형식의 책을 펴냈다. 이번에 출간한 〈나랏말싸미 · 맹가노니〉는 시나리오 창작 과정서 참고한 자료와 각본가로서 자신의 경험 및 소회 등을 담은 책이다. 이송원 작가는 시나리오를 신별로 구분해 각 신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참고했는지, 드라마타이즈를 위해 어떤 부분은 부각시키고 어떤 부분은 생략했는지를 생생히 담고 있어 일반 독자뿐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은 물론 창작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나랏말싸미〉 후반 작업 과정서 편집된 장면의 시나리오도 담고 있어, 영화를 먼저 본 독자들에게는 영화와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읽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송원 작가는 한글창제 과정을 새롭게 영화로 만들고자 한 이유를 책의 서문서 밝힌다.

"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반영하지만 그와 구별되는 '하나의 가능한 세계'다. 남은 목숨과 바꿔서라도 쉬운 문자를 만들려는 분투 끝에 위대함의 반열로 진입하는 인간 이도(세종의 본명)의 험난한 여정을 우리는 그리고자 했다. 그 길의 동반자로 신미(信眉)라는 실존인물에 주목했으며, 세종과 맞서고 협력하고 격돌하는 영화적 캐릭터로 탈바꿈시켰다. 신미 캐릭터는 세종의 내면에 도사린 그림자를 분리하여 인격화한 '또 다른 자아(alter ego)'다. 세종의 마음속에서 벌어졌을 치열한 싸움을 외면화한 상대역으로 신미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다.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는 1443년 12월 30일자 실록기사 이전의 역사공백을 개연성 있는 허구로 재구성한 작업의 요체다."

비록 촬영본에서는 편집되었지만, 시나리오가 세종의 죽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22쪽). '세종'이라는 묘호를 두고 정인지와 문종이 대립하는 첫 번째 신은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칭송받는 세종이 당대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이 신은 '성군 프레임'으로는 미처 설명할 수 없는 세종의 좌절과 고뇌를 보여준다. 이송원 작가가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주목한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다. 이송원 작가는 좌절에 빠진 세종이 시력과 남은 목숨까지 바꿔가며 문자를 만들며 위대해져가는 과정을 극화함으로써,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의 어려움과 가치를 영화 속에 담으려 했음을 이 책에서 밝힌다.

이송원 작가가 드라마타이즈를 위해 실존인물 신미에 역할을 부여하거나, 정인지와 고약해 같은 인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은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과 창작 사이에 어떤 긴장이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을 완성도 있게 풀어내는 것이 창작자가 할 일이다. 이송원 작가가 시나리오의 각 신을 해설할 때마다 언급하고 있는 책과 실록 자료, 더 나아가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 또한 시나리오에 녹아들어, 이야기의 구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종의 실존적 고통을 현실적이고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로 완성하려 했다.

작가가 시나리오를 통해 부각시키고자 한 세종의 모습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좌절하고 고뇌하는 '인간 세종'의 모습뿐만은 아니다. 한글창제 과정을 과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과생 세종'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해시계, 물시계를 장영실을 통해 만들게 한 세종은 조선왕조 역사상 유일하게 천문학과 수학, 공학과 의학, 농학 같은 이공계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을 남긴 왕이다. 이러한 '이공계 마인드'가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세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시나리오에서 담아내고자 했다. 문자가 단순하고 쉬워야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시나리오 속 대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했다. 이송원 작가는 서문에서 지금 세종에 다시 주목한 이유를 밝힌다.

"같은 인물이라도 새로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세종은 생생지락(生生之樂)이란 말을 자주 썼다. 백성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를 살맛나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뜻한다. 훈민정음은 즐겁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간절함의 산물이며, 생생지락이야말로 정작 '지금, 이곳'에 절실한 시대정신이다. 수백 년 동안 역사의 공백 속에 묻혀 있던 훈민정음창제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쓰면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이 갖는 21세기적 가치도 눈에 들어왔다. 이 책의 제목에 '맹가노니'를 쓴 까닭이다."

▲저자 **이송원**은?

부산 보수동의 피난민집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11년 사이에 고려대 철학과와 프랑스문화원과 육군35사단에서 공부했다. 한국자동차를 유럽에 수출하다 영화판으로 이적해 한국영화를 수출했다. 〈쉬리〉 〈텔미썸딩〉 〈반칙왕〉 등을 팔았으며, 외화수입으로 영역을 넓혀 〈아모레스 페로스〉 〈그녀에게〉 〈머시니스트〉 등을 국내에 소개했다.

누가 '직지'의 진실을 감추는가?



직지 1, 2
김진명 지음/쌤엔파커스/각권 1만 4천원

인류 최고 발명품인 금속활자가
우리로부터 비롯됨 추적한 대작

기괴한 상징 살인 뒤에 감춰진
'직지' 미스터리 마침내 밝힌다

소설가 김진명이 최근 펴낸 책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받은 '직지'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둘러싼 중세의 미스터리를 추적한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치밀한 자료조사와 프랑스 등 현지 취재, 그리고 현대 과학의 성과에 역사적 상상력을 더해 금속활자의 전파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선다.

소설은 현재를 배경으로 시작되지만 조선 세종대와 15세기 유럽으로 시공간을 넓혀가며 정교한 스토리와 속도감 넘치는 전개로 단숨에 독자를 빨아들인다. 인간 지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유산을 둘러싸고 지식을 나누려는 자들과 독점하려는 자들의 충돌, 그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인물들의 기막힌 운명이 펼쳐진다. 김진명 작가는 직지와 한글이 지식혁명의 씨앗이 되는 과정을 추적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한편, 그 속에 담긴 정신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나는 종종 최고(最古)의 목판본 다라니경,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직지,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꼽는 최고(最高)의 언어 한글,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지식 전달의 수단에서 우리가 늘 앞서간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한국문화가 일관되게 인류의 지식혁명에 이바지해왔다는 보이지 않는 역사에 긍지를 느끼게 된다."고 소감을 밝힌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는 1995년 "한국은 금속활자 발명과 디지털 기술로 인류에게 큰 선물을 줬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진명 작가는 이번 〈직지〉를 통해 익숙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위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더 나아가 '직지'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에 담긴 정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도 일깨워준다.

지식과 정보를 지배층의 독점서 해방시켜 전 인류가 함께 나아가자는 것. 이것이 직지와 한글에 담긴 정신이며, 이는 지식혁명을 이끈 도구로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자 반도체 1위 국가가 된 원동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소설에는 바티칸 수장고서 발견된 교황 편지와 동서양 최고의 금속활자본을 전자현미경으로 비교 분석한 현대 과학의 성과가 주요한 단서로 등장한다. 작가는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금속활자 주조술이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을 밝히며, 역사 기록의 공백은 진일보한 상상력으로 채워간다. 과연 '직지' 탄생 이후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가 나오기까지 중세 유럽에선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인 기자의 시선을 따라가며 의문의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직지의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일간지 사회부 기자 김기연은 베테랑 형사조차 충격에 빠뜨린 기괴한 살인현장을 취재한다. 무참히 살해된 시신은 귀가 잘려나가고 창이 심장을 관통했다. 놀라운 것은 드라큘라에게 당한 듯 목에 송곳니 자국이 선명하고 피가 빨렸다는 점이다. 피살자는 고려대서 라틴어를 가르쳤던 전형우 교수이다. 과학수사로도 용의자를 찾을 수 없는 가운데, 기연은 이 기묘한 사건에 점점 빠져든다. 그러던 중 살해된 교수의 차량 내비게이션서 최근 목적지가 청주 '서원대학교'임을 알아내고, 그의 휴대폰서 '서원대 김정진 교수'라는 사람을 찾아낸다. 김 교수는 '직지' 알리기 운동을 펼치는 인물로서 구텐베르크 금속활자의 뿌리가 '직지'라 확신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캐고 있다. 그러던 중 바티칸 비밀수장고서 오래된 양피지 편지가 발견된다. 그것은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 충숙왕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로, 직지 연구자들은 이것이 '직지'의 유럽 전파를 입증해줄 거라 믿고 편지의 해석을 전형우 교수에게 의뢰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그 가능성을 부정한 해석을 내놓았고, 연구자들은 그에게 분노한다. 기연은 처음으로 범행동기가 나타났음을 깨닫고 직지 연구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린다.

그러나 범행동기와 살인현장이 전혀 매치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에서 고민하던 기연은 전 교수의 서재서 결정적 단서를 발견한다. 그것은 남프랑스 여행안내서와 책에 적힌 두 사람의 이름, 스트라스부르대학의 피셔 교수와 아비뇽의 카레나. 기연은 전 교수가 계획한 동선을 따라가 두 사람을 만나보려고 프랑스로 날아간다. 거기엔 기연이 상상도 못한 반전과 충격적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 얼핏 줄거리의 설명만 들어봐도 스릴 넘친다. 마지막 한 글자까지 이 책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치밀한 구성과 짜릿한 반전, 그것이 이 책을 읽는 묘미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우수학술도서)
자현/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39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양장/536쪽/27,000원

40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양장/312쪽/17,000원

41 불교교육론
이송곤/양장/528쪽/27,000원

42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양장/328쪽/18,000원

43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양장/384쪽/20,000원

44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양장/824쪽/3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묘법연화경(법화경)〉이 초대형 교성곡으로 만들어졌다. 위 사진은 2018년 서울KBS홀서 열린 제13회 천태예술제에서 '묘법연화경' 교성곡 11곡을 선보인 음악회 장면.

묘법연화경, 교성곡 묘음으로 피다

천태종 '법화광명의 노래' 초연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
8월 25일 구인사 대조사전서

〈묘법연화경〉 전품 30곡 노래로 옮겨
작사, 광도 스님 · 고우익 법사
작곡, 조원행 · 김백찬 · 함현상
1300명 천태합창단 합창 초대형 무대
성악 · 율동 · 영산회상 재현 무대 조성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묘법연화경(법화경)〉이 초대형 교성곡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무대에 오른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는 천태종은 8월 25일 오후 7시 30분 단양 구인사 조사전 앞 특설무대에서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초연 음악회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을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발표되는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는 천태종이 종단 차원에서 회향한 대작불사로, 〈묘법연화경〉의 수승한 가르침을 음악으로 배우고 찬탄하며 신행과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좀처럼 외연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한국불교음악의 현실을 극복하고 21세기 한국불교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자는 원력 아래 창작된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는 대형 무대 공연은 물론 일상적인 찬불가로도 널리 불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적인 불교음악', '시대의 어울리는 불교음악'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진 '법화광명의 노래'는 서곡을 시작으로 하여 〈묘법연화경〉 전품(서품에서 28품까지)과 회향의 무대까지 총 30곡으로 구성됐다. 가사는 〈법화경〉 가르침의 원문을 최대한 옮겨서 지었으며, 음악은 세마치, 자진모리 등 국악의 여러 장단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광도 스님(금강대학교 교수), 고우익 법사(금강승가대 교수, 前 군법사)가 작사에 참여했고, 조원행(작곡가, 청주시립국악단 지휘자), 김백찬(작곡가), 함현상(작곡가)이 참여했다.

이번 초연에서는 1300여 명으로 구성된 천태합창단의 합창과 동서양 성악 전공자들의 협연(솔리스트 및 중창단), 그리고 영산회상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와 무용단의 율동, 다양한 영상효과까지 더해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웅장하고 법향 가득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발표되는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는 종단의 소의경전 〈묘법연화경〉을 대형 교성곡으로 만들어 종도들의 신심과 원력을 돕고, 일상 법회에서도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종단의 의지가 모아져 2016년에 시작됐다. 2018년 9월 15일 서울KBS홀에서 열린 제13회 천태예술제에서 서곡을 포함한 11곡이 먼저 발표됐으며, 올해 3월부터 전국 천태합창단 수련회와 오디션을 개최했다.

2시간 40분 동안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성의신 천태예술단장(KBS국악관현악단 해금연주자)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하고, 총연출은 이재성(가천대 교수), 총지휘는 조원행(청주시립국악단 지휘자)이 참여한다. 천태종 사찰 합창단원 중 오디션 통과자로 구성된 천태합창단과 47명으로 구성된 마하연국악단이 참여하고, 진행 및 나레이션에 남도형, 소프라노 황혜진 · 여지영, 테너 정우진 · 최성혁, 바리톤 김재일, 베이스 박경태, 경기소리 최수정, 남도소리(여) 천주미, 남도소리(남) 이봉근, 정가 김영기 외 2명이 참여한다.

남성중창에는 테너 1 김화정 · 김태환 · 정무시, 테너 2 박준홍 · 한정일 · 최성혁, 바리톤 권준대 · 유원연 · 조승완 · 조창준, 베이스 양영승 · 임상민 · 추현철이 참여한다.

이번 음악회의 중심인 천태합창단은 1986년 6월 14일, 남대충 제2대 종정예하의 증명 아래 김도원 스님을 지도법사로 '금강합창단'이라는 명칭의 종단 직할합창단으로 출범했다. 천태합창단은 전국 천태종 지역사찰 소속 96개 합창단 2,30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각 사찰 정기법회와 지역 행사 등에서 음성공양과 봉사활동을 하고 종단의 행사와 특별법회 등에서는 연합합창단으로 공연한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한 천태종 교육부장 장호 스님은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는 오종법사의 실천과 〈법화경〉을 통한 불교음악 대중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고 음악회의 취지와 의미를 밝혔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뜻을 밝힌 경전으로, '경전 중의 경전' '최상승 법문' 등으로 칭송된다. '삿다르마'는 바른 법, 푼다리카는 백련꽃, 수트라는 '경'이라는 의미이며 전체로서는 '하얀 연꽃 같이 깨끗하고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의미다.

〈법화경〉은 두 개의 장이 있는데 하나는 제2장 방편품, 다른 하나는 제16장 여래수량품이다. 전편을 통해 〈법화경〉은 보살, 비구, 비구니, 사람들에게 성불을 예언하고 그러기 위해 일불승을 삼승으로 나누어 설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성불수기를 주는 부처님은 구원실성의 본불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법화경〉의 독송과 수지(受持), 해설과 서사(書寫)를 강력히 주장한다. 천태대사 지의(智顗 · 538~597)에 의해 확립된 천태학은 한국, 일본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의천(義天 · 1055~1101)에 의해 천태종이 개창됐다. (043)420-7100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 공모

'도약의 단초 시즌5' 9월 16~27일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2019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 '도약의 단초 시즌 5' 공모를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

탑골미술관의 신인작가 지원사업 '도약의 단초'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공간에서 개인전 경험이 없는 신인작가들에게 예술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를 통해 1차로 선발된 작가들에게 단체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 기간 동안 어르신 관객과 전문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신인 작가 1인은 탑골미술관에서 생애 첫 전시 기회를 갖게 된다.

'도약의 단초' 공모 대상은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시각예술 작가로 나이와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우대 사항으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진행이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공모신청서 1부, 최근 3년 간 작품 10점 내외 이미지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3부이다. 포트폴리오는 최근 3년간 작품 10점 내외 이미지이며, 작품제목, 크기, 재료, 연도, 작품설명, 작가 의도 작가 이력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www.seoulno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경운동) 2층 사무실이다. 심사는 전문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와 단체전의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에서 단체전 대상자 3인을 선정하는데, 10월 중 개별통보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차 심사에서는 단체전 기간 중 어르신 관람객 현장투표와 2차 심사(프리젠테이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1인을 선정한다. 2020년 1월 중 개별통보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020년 3월 중 최종 1인의 개인전을 진행한다. (02)6220-8554 박재완 기자





‘종교자유’ 둘러싼 정치 지형 살피다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주목! 학술서- 이진구의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08년 8월 27일 불교도 20만 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스님과 불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며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불교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직자 종교편향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기실 2000년대 이후 유독 ‘종교자유’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불교 신자인 오태양은 자비 사상과 평화주의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 불을 붙였고, 대광고 고등학생으로서 채플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와 단식투쟁을 벌인 강의석은 학교 안의 종교자유 문제에 불을 지폈으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은 기독교 집회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내용의 봉헌서를 낭독해 이른바 ‘서울시 봉헌 사건’을 일으켰다.

발단의 경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 가지의 사건은 병역(군대), 교육(학교), 공직사회에서 종교자유가 여전히 뜨거운 쟁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의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종교자유 변화와 이와 얽힌 구조적 지형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기실 종교자유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면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학계의 연구는 개별 사안 중심의 연구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자유 문제의 전반적 성격과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자유 문제를 조망하면서 종교자유의 시기별 특성과 함께 구조적 측면에도 주목했다. 시기적 측면에서는 개항기, 일제하, 군사정권기, 민주화 이후 시대 등 네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개항기의 종교자유 담론은 서구종교인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활동을 보장하는 교두보 역할을 주로 한 반면, 일제강점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신사참배, 종교단체법의 제정을 둘러싼 식민권력과 선교권력의 대립 구도 속에서 종교자유 문제가 주로 부상했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진보적 개신교 진영의 선교자유 담론과 정부 관료의 정교분리 담론의 충돌 과정에서 종교자유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및 미션스쿨과 관련된 종교자유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와 미션스쿨의 종교자유가 공론의 장으로 떠올랐다.

이 시기부터 특히 공직자의 종교자유 문제를 비롯해 시민단체의 종교법인법 제정, 보수 개신교 진영의 해외선교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특정 종교의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활동 내지 종교적 신념표현을 ‘종교자유’로 포장하거나 강변함으로써, 종교자유라는 말의 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 종교자유는 ‘살아있는’ 주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이 종교자유를 지배의 테크놀로지로 활용하는 방식과 종교권력이 자기 방어적 선교의 도구로 종교자유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자유의 규범과 이상을 활용하는 ‘종교자유의 정치학’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시화와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챕터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 갈등은 국가나 종교단체, 개인이 아닌 종교단체 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문제 삼지만, 보수 개신교는 개인의 종교 자유로 방어한다. 반대로 보수 개신교는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을 종교편향으로 지적하지만, 불교는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는 불교와 보수 개신교가 국가 권력을 매개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두 거대한 종교권력의 대립 구도 속에서 국가 권력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하며 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2008년 8월 27일 열린 범불교도 대회의 모습과 2010년 발생한 봉은사 땅밟기 사건 이후 신학대생들의 사과 방문의 모습. 모두 종교자유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근현대사 內 종교문제 조망

초기 소수종교 선교 보장서

국가 · 종교권력 활용으로 이동

종교편향 · 종교평화법 · 훼불 등

불교VS보수개신교 대립 형국

갈등구도 속 정치권 눈치보기

“다솔사 안거 법회 ‘친일’ 아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퇴계학논집 논문서 주장

1939년 다솔사 공문 발굴 · 분석

친일 아닌 학술대회 성격 강해



1939년 8월 경남 사천 다솔사에서 열린 하안거 법회가 친일이 아닌 학술대회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는 〈퇴계학논집〉 24권에 기고한 논문 ‘다솔사 안거 법회(1939), 개요와 성격’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에서 김광식 교수는 다솔사가 행사 개최 20일 전인 1939년 7월 21일자로 선리참구원(현 선학원)에 보낸 공문인 ‘소화 14년도(1939) 방장산 다솔사 하안거 개요’를 발굴 · 분석했다.

공문은 일본 천태종서 다솔사에 보낸 일종의 법회 기획서로 주최 · 후원 · 취지 · 장소 · 일시 · 행사 내용 등 법회의 구체적인 개요와 내용이 담겼다.

하안거 법회 행사는 ‘조선문화 친선수행’을 목적으로 〈법화경〉에 의거해 죄업을 참회하는 법화 삼매 수행과 상행삼매 수행, 법화팔강 수행, 학술 · 문화 연구 등이 이뤄졌다.

1939년 8월 21~26일 열린 법회는 당시에는 봉행되기 어려운 대형 행사였다. 국내에서는 율사이자 밀교의식의 권위자였던 영암 스님을 대표로 쌍계사 범해, 통도사 구하, 범어사 경산, 해인사의 경하 · 고경 · 환경 스님 등 선지식 40명이 대거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도 유명 불교학자와 스님 35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범술 스님의 주도로 열린 다솔사 법회는 2000년대 중후반 친일 논란에 휩싸였고, 불교계 내부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광식 교수는 당시 다솔사의 문화적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회였음을 주목했다. 식민지 시설 대형 법회, 행사를 기획 · 추진할 수 있었던 다솔사의 문화적 능력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솔사 법회에 나타난 한국불교 문화적 자신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대형 안거 법회라는 문화적 행사를 식민지 통치국인 일본불교와 대등하게 진행한 실력은 간단치 않았다는 것이다.

김광식 교수는 “다솔사 하안거 법회는 친일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학술대회 성격이 강했다”며 “오히려 식민지 통치국인 일본불교와 대등하게 진행한 다솔사의 문화적 능력은 물론 당시 한국불교의 문화적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민지 통치가 심화되던 시절, 식민지국과 피식민지국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 학술행사를 벌인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제하 양국의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절 경남 오지의 사찰인 다솔사에서 있었던 한일 불교문화 행사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고전 한문 전문가 되고 싶다면

동국대 불교학술원 2학기 한문아카데미 모집

8월 23일까지 접수… 9월 2일 개강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에서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2019년도 2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심화과정은 2019년 1학기부터 1과목 증설돼 총 5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의는 △불성론(월, 박해당) △능엄경(화, 선암 스님) △불가문집 번역연습(수, 성태용) △한시특강(목, 이상하) △서장(금, 문광 스님)이 진행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수강생도 모집한다. 학기당 15주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30학점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선발연수생’과 한 과목씩 선택해 수강하는 ‘일반연수생’이 나뉜다.

강의는 △법화경(월, 금천 스님) △범어-한문 경전강독(화, 원과 스님) △고급한문법(수, 안재철) △구사론(목, 박인성) △벽암록(금, 박영록)이 이뤄진다. 강의 시간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이다.

원서 접수는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 전형은 8월 24일에 실시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필기고사 전형을 거쳐야 하며 정원은 10여 명이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 수업료는 학기당 60만원이고, 기본과정 일반연수생 수업료는 과목당 20만원이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한문아카데미 수료생의 수강료는 기본과정은 선발연수생 42만원, 일반연수생 14만원, 심화과정 선발연수생 30만원이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선발연수생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또한 조계종 스님이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3급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오래된 질문

달빛이 무거워지는
밤은 이제 뒤척이는 자의 몫

뒤척인다는 건
오늘이 아직 남았다는 것
다시 오래 된 질문들이
작은 폐부를 가득 채운다
몸을 고쳐 누울 때마다
나는? 삶은? 내일은? 그 다음은?
구름이 달을 덮고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㊳ 윤봉길 의사

"죽는 순간까지 기개 살린 윤의사가 그립다"

1932년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서 순국
암장된 유해 발굴해 1946년 조국에 봉환
1992년 12월 19일 '암장지적' 비석 조성돼
2001년 12월 19일 69주기 추모제 봉행해

나는 효창공원을 자주 찾는다. 그곳에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가 모셔져 있어서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역사속으로 장렬히 산화한 윤봉길 의사의 묘역을 찾을 때마다 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내가 윤봉길 의사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속에서다. 윤 의사의 의거 장면은 말만 들어도 영화속 한 장면처럼 감동과 긴장이 전해졌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했고 삼엄한 경계가 겹겹이 쳐졌다.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 노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 상해 총영사 무라이 등 침략의 원흉들이 도열해 있었다. 오전 11시 40분경 축하식 중 일본 국가 연주가 거의 끝날 무렵, 윤 의사는 앞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 단상 위로 폭탄을 투척했다. 폭탄은 그대로 노무라와 시라카와의 면전서 폭발,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을 내고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의거로 시라카와 대장과 카와바다 거류민 단장이 사망하고 노무라 중장은 실명, 우에다 중장은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시게미츠 공사는 절름발이가 되었고, 무라이 총영사와 토모노(友野) 거류민단 서기장도 중상을 입었다.

윤 의사의 이 쾌거는 곧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중국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감격해 하며, 종래 무관심하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중국육군중앙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도 적극 성원했다. 또한 한동안 침체일로에 빠졌던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윤봉길 의사 의거에 힘입은 바가 컸다.

현장서 붙잡힌 윤 의사는 가혹한 고문 끝에 그해 5월 25일 상해 파견 일본군법회의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때에도 "이 철권으로 일본을 즉각 타도하려고 상해에 왔다"며 대한 남아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 이후 윤 의사는 일본 오사카로 호송된 뒤 1932년 12월 19일 새벽 7시 27분 가나자와(金澤) 육군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 총살, 25세의 젊디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윤 의사의 유해는 일제에 의해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졌고, 광복 후인 1946년에야 조국에 봉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국민회의 부주석 김구는 일본에 있던 박열에게 3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유해 발굴을 부탁했다. 유해봉안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열은 재일동포들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1946년 3월 6일 사형장에서 남쪽으로 3㎞ 떨어진 가나자와(金澤)시



2001년 12월 19일 가나자와서 윤봉길의사 69주기 추모제를 지낸 후 사진촬영을 한 삼중 스님(사진 오른쪽).

노다(野田)산 시영공동묘지 북측 통행로에서 윤봉길의 유해를 발굴했다. 같은 해 6월 16일 서울로 유해를 옮겨 6월 30일 국민장으로 안장됐다. 3년 후인 1965년에는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준비위가 구성됐으며, 기념사업회 역시 설립되었고, 12월 19일에는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준비위를 서울 조계사서 발족하기도 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윤봉길 의사는 내 가슴속에 항상 큰 자리로 존재해 있다.

2001년 12월 19일 나는 윤 의사의 얼과 넋을 기리기 위해 일본 동경서 기차로 3시간 걸리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교외에 있는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 · 1908~1932) 의사를 기리는 '암장지적'(暗葬之跡) 비석이 세워진 장소로 향했다. 이곳은 윤봉길 의사가 암매장됐던 흔적을 남기고자 1992년 12월 19일 조성됐다. 12월 19일은 윤 의사가 순국한 날이다.

가나자와에 있는 '윤봉길 의사 암장지 보존회'는 당시 윤 의사의 유해가 일제에 의해 인근 육군묘지에서 벗어난 언덕 밑으로, 사람이 드물게 왕래하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통로에 묻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일제는 암장지가 묘지임을 알지 못하도록 아예 묘비나 묘표를 세우지 않았고, 봉분이 없는 평토장 형태로 만들어 행인들이 함부로 밟고 지나다니도록 방치했다고 한다. 당시 윤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임시정부 유해발굴단이 조직된 것으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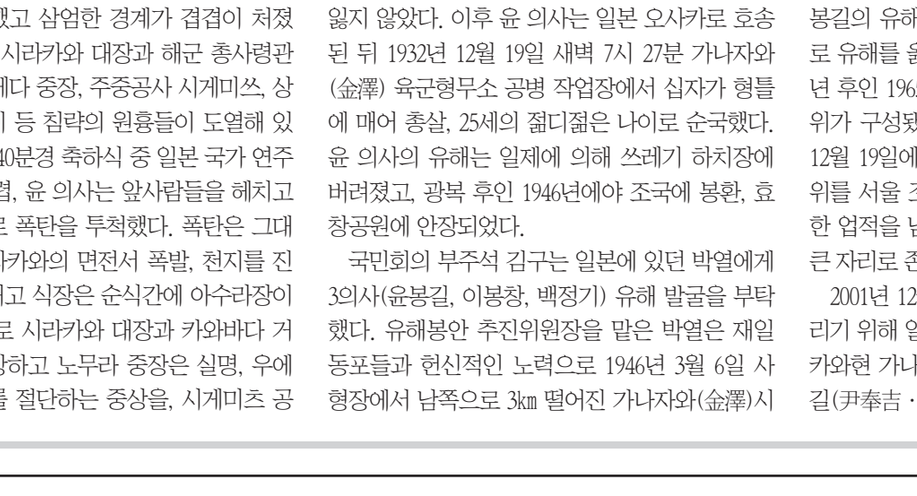
노다야마 공동묘지의 한쪽 길로 접어들자 계단이 놓인 길옆에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이라 쓰인 비석이 눈에 띄었다. 그 앞에는 윤 의사를 기리는 꽃이 놓여 있었다. 암장지적비 왼쪽 옆에는 윤 의사에 대해 "장렬한 24세 6개월의 짧은 생애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체(유해)는 형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암장돼 묘비도 없이 많은 사람의 발에 짓밟혔다" 등을 설명한 안내판도 있었다. 암장지 근처에는 1992년 4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윤 의사 의거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세운 순국기념비도 있다.

당시 나는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얼이 서린 현장에서 69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스님들과 신도들, 교포 들과 함께 여법히 치렀다. 사실 나는 윤 의사의 친동생인 윤남의씨와 친분이 있었다. 40여년전 서울 인사동서 자주 만나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기회가 있었다. 동생의 기억에 의하면 형인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 수덕사에 주석하신 만공 스님을 찾아가 처사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나는 그날 하루종일 추모제를 지내면서 일본의 서슬퍼런 협박과 고문에도 죽는 순간까지 대한남아의 기개를 잃지 않았던 윤봉길 의사의 순국정신을 깊이 또 깊이 새겼다. 다음주 광복절이 다가오니까 더욱 윤봉길 의사가 그리워 진다. 건강이 좀 나아지면 다시 효창 공원을 찾아야 겠다.

정리=김주일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광명선원

항상 나한테 감추어 숨어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서 밝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조상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 대행선사법어 中

七 칠 석 백 중 百 中

칠월칠석 법회

8월 7일(음력 7월 7일 水) 오전 10시 30분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부모, 가족이
선근인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밝히며
축원을 올리는 날입니다.

• 축원문 접수 : 가족, 직장, 개인

백중 합동천도재

8월 15일(음력 7월 15일 木) 오전 10시 30분

점등식 도량돌이

8월 15일(음력 7월 15일 木) 저녁 7시 예불 후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며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날입니다.

• 연가등 접수 : 조상님, 무명영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광명선원

